

국통조85-12-1887



北韓經濟体制의 開放化要因分析과 展望

國土統一院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調查研究計劃에 의거한 特殊課題
研究의 結果報告書임.

II. 收錄된 내용은 刊行處의 意見を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
니며 統一問題와 관련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經濟體制의 開放化 要因分析과 展望

研究執筆責任

鄭

暢

泳

(延世大學校 商經大學 教授)

刊行責任

李

浩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차 례

I. 北韓의 經濟發展過程	5
가. 初期 기반준비기 (1947-1953)	5
나. 戰後復舊 3 個年計劃 (1954-1956)	8
다. 第 1 次 5 個年經濟計劃 (1957-1960)	10
라. 第 1 次 7 個年經濟計劃 (1961-1970)	12
마. 6 個年經濟計劃 (1971-1976)	17
바. 第 2 次 7 個年經濟計劃 (1978-1984)	19
II. 北韓의 經濟發展戰略	27
— 發展의 限界性구명을 중심으로	
III. 發展戰略의 수정과 開放化	44
가. 開放化에 대한 變化要因과 추이	44
나. 合營法과 開放化戰略의 정착	59
IV. 開放化 展望 — 效率性を 中心으로	62
V. 要約 및 結論	77

표 · 그림 차례

<표 1 - 1> 쌀 町步當生産量 (1945-1950)	6
<표 1 - 2> 貿易高 (1946-1950)	7
<표 1 - 3> 北韓의 歲出總額 (1947-1956)	9
<표 1 - 4> 北韓의 國民總生産成長率 (1953-1956)	9
<표 1 - 5> 北韓의 國民總生産額과 1인당 國民總生産額 (1953-1956)	10
<표 1 - 6> 1인당 國民總生産額 (1957-1960)	12
<표 1 - 7> 國民總生産增加率 (北韓) (1957 - 1960)	12
<표 1 - 8> 北韓의 鑛工業投資比率	13
<표 1 - 9> 단계별 연 평균 工業成長率	14
<표 1 - 10> 1인당 國民總生産額	15
<표 1 - 11> 北韓의 國民總生産成長率 (1961-1970)	15
<표 1 - 12> 北韓의 쌀 町步當生産量 (1961-1970)	15
<표 1 - 13> 北韓의 쌀 생산량 (1961-1970)	16
<표 1 - 14> 北韓의 人口 萬 名當 醫師數 (1960-1970)	16
<표 1 - 15> 北韓의 國民總生産增加率 (1971-1977)	18
<표 1 - 16> 1人當 國民總生産 (1971-1977)	18
<표 1 - 17> 北韓의 對外去來 (1970-1977)	19
<표 1 - 18> 北韓의 主要公産품 生産증가율 (1978-1984)	20

<표 1 - 19>	北韓의 연 평균 주요공산품생산 증가율 (1978-1984)	21
<표 1 - 20>	北韓의 貿易收支 (1978-1983)	22
<표 1 - 21>	南北韓 輸出商品構造 (1983)	22
<표 1 - 22>	北韓의 쌀 생산량과 生産性 (1977-1980)	23
<표 1 - 23>	北韓의 食糧作物生産量 (1978-1983)	23
<그림 1-1>	北韓의 연 평균 工業成長率 (1947 - 1984)	24
<그림 1-2>	北韓의 연 평균 工業成長率 누적 (1947-1984)	25
<그림 1-3>	北韓의 1人當 國民總生産變化 (1947-1984)	25
<그림 1-4>	北韓의 國民總生産 변화추이 (1947-1984)	26
<표 2 - 1>	北韓의 重工業 對 輕工業 投資比 (計劃期間別)	28
<표 2 - 2>	北韓의 쌀 町步當生産量 (1945-1983)	29
<표 2 - 3>	北韓의 주요 輕工業製品 生産能力 (1983)	30
<표 2 - 4>	北韓의 輸送部門 기초실태 (1945-1980)	30
<표 2 - 5>	北韓의 輸送現況 (1983)	31
<표 2 - 6>	南韓에 있어서 粗生産成長 및 構造變化的 分解結果 (1955-1975)	34
<그림 2-1>	輸入代替時的 損失 (B. Munk)	36
<표 2 - 7>	北韓의 貿易狀況 (1946-1983)	36
<표 2 - 8>	北韓의 外債分布現況 (1983년 말)	37
<표 2 - 9>	北韓의 輸出入 商品構造와 輸出品目 (1983)	37
<표 2 - 10>	北韓의 에너지 消費實態 (依存度 : 1983)	39

<표 2 - 11>	北韓의 주요에너지 現況 (1983)	39
<표 2 - 12>	北韓의 주요機械製品 生産能力 (1983)	40
<표 2 - 13>	北韓의 軍事費 내역 (1961-1983)	41
<표 3 - 1>	北韓의 貿易高 I (1946-1969)	44
<표 3 - 2>	北韓의 貿易高 II (1969-1980)	45
<표 3 - 3>	北韓의 高位級 外交活動 (1948-1980)	47
<표 3 - 4>	北韓의 修交國 總 數 (1948-1984)	47
<표 3 - 5>	中共의 貿易依存度	48
<표 3 - 6>	中共과 西方先進國과의 貿易 (1950-1982)	49
<표 3 - 7>	中共과 西方發展途上國과의 貿易 (1950-1982)	51
<표 3 - 8>	中共의 共產圈國家와의 貿易 (1950-1982)	53
<표 3 - 9>	貿易協定 締結現況 (北韓 : 1984)	58
<표 4 - 1>	輸出의 經濟成長寄與度 (中共)	64
<표 4 - 2>	輸出商品構造 (中共)	65
<표 4 - 3>	開放化 이후 投資 (重工業對 輕工業) 比率의 變化 (中共)	67
<표 4 - 4>	주요 연도별 工業成長率 (中共)	68
<표 4 - 5>	방직업제품의 生産推移 (中共)	69
<표 4 - 6>	穀物生産의 變化 (中共)	70
<표 4 - 7>	주요 연도별 勞動生産性的의 變化 (中共)	71
<표 4 - 8>	北韓의 시기별 市場構造 (1965-1980)	72

I. 北韓의 經濟發展過程

北韓의 經濟發展過程은 社會主義經濟圈의 가장 뚜렷한 原則을 그대로 답습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로써 우선 특징지을 수 있다. 물론 그들의 經濟發展이란 그들 자신의 憲法에서도 명시된 것처럼 人民의 福利增進이 가장 큰 目的이겠지만 그것보다도 南韓에 대한 經濟的 優位와 韓半島에서의 赤化統一을 위한 對南優位性 確保에 있음이 이미 여러차례指摘된 바와 같다. 이런 狀態에서 北韓은 資源配分을 위시한 모든 經濟政策을 重工業 優先主義, 自力更生原則, 國防·經濟併進의 3大 基本方向 아래 두고 推進해 왔으며 비록 그 根本理念은 繼續된다 할지라도 이 原則의 加減的 強調가 經濟의 循環構造를 形成하면서 꾸준히 내려왔다. 여기에서는 이들 經濟發展戰略을 논의하기에 앞서 北韓의 經濟發展過程을 優先 計劃期間別로 간단하게 정리한 뒤 전체적으로 模型化시켜 살펴봄으로써 그 限界性的 側面에서 分析의 기초를 삼으려 한다.

가. 初期 基盤準備期 (1947 ~ 1953)

北韓經濟의 1段階 基盤準備期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의 期間을 包含하는 것으로써 이는 다시 6.25이전과 전쟁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6·25사변이 나던 1950년부터 휴전이 成立된 1953년까지의 期間에는 별로 큰 진전이 있을 수 없었으므로 사실상 1947년부터 1950年(엄밀하게 1950년 전반) 期間을 包含하는 것이다.

해방직후 日本이 남기고 간 시설의 복구와 計劃經濟를 실시하기 위한 準備段階로서 重要な 産業施設의 國有化 (1946年 8月 ‘主要産業國有化法令’ 공포)에着手한 北韓은 이미 1946年 3월에 發表한 ‘土地改革法令’을 시초로 1958年 모든 土地의 완전몰수, 國有化 또는 協同化로서 經濟기틀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1947年 이미 ‘第1次1個年計劃’을 실시하였으며 곧 이어 1948년에는 ‘第2次 1個年計劃’을 遂行하였고 1949년부터 1950년까지는 ‘1次 2個年計劃’을 실시하여 한편으로는 生産手段의 初歩的인 社會化 基礎를 다지면서 一種의 計劃經濟를 導入해 實驗하고 또 한편으로는 生活 必需品의 生産을 增加시키고 日帝가 남기고 간 工場, 企業所를 整備하면서 그 根本目標를 食糧問題의 解決에 두었다. 重工業化를 推進하기에는 根本的인 限界가 아직 있음을 알았던 이 時期에는 輕工業과 農業優先政策을 併進시켜 어느 정도 成果를 거둘 수도 있었으며 특히 ‘1次 2個年計劃’ 期間 中에는 營農方法의 改善을 통한 食糧增産과 商業部門의 社會化에 目標를 두어 生産手段의 現저한 社會化와 食糧事情의 改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까지의 이 時期가 바로 唯一하게 쌀 町步當生産量에서 北韓이 南韓을 凌駕한 時期가 된다.

<表1-1> 쌀 町步當生産量 (單位: 10 kg)

年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南 韓	175	157	178	199	202	192
北 韓	186.4	192	(199)	(206)	215	150

* 國土統一院, 「南北韓總力趨勢比較」, 1982. 1.

—이하 國土統一院 (1982. 1)로 씀.

* ()은 平均增加率適用 算出值임.

그런 가운데 工業部門 特히 冶金 및 機械工業의 建設 및 擴張을 日帝工業의 淸산이라는 기치아래서 계속 자극시켜 전쟁에 대한 對比를 하였으며 이 당시에는 아직 社會主義經濟政策에 대한 뚜렷한 導入과 原則이 없는 狀態속에서 日帝의 破行的 産業要素의 除去와 北韓住民의 基本需要에 대한 充足試圖가 이루어졌던 時期였다.

이 때의 年平均 工業成長率이 49.9%에 달해, 계속적인 計劃經濟의 틀 아래에서 成長을 추구하였던 以後의 어느 時期보다도 높은 成長率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것은 곧 그들에게 새로운 여러 試圖를 向한 意慾과 힘을 불어 넣어주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이 時期에는 (1946 ~ 1950) 南 · 北韓 對比로 보아 北韓의 貿易高가 南韓보다 높게 나타나 아직 自力更生의 閉鎖的인 經濟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結局 아직 重工業優先主義와 自力更生의 原則이 強調되지 않은 이 첫 段階의 時期가 成長率이 가장 높고 (비록 초기 原點基準値가 극히 적었다하더라도) 알찬 成長을 기했다는 점은 1970年代 以後 北韓經濟의 問題點分析에 많은 示唆點을 이미 던져준다 할 수 있다.

<表 1-2> 貿易高 (單位: 百萬 圓)

年	1946	1947	1948	1949	1950
南 韓	2.2	32	160.6	260.1	377.8
增加率 %		1,354.5	401.9	61.9	45.3
北 韓	111.4	227.3	398.5	512.2	1,044.4
增加率 %		104.0	75.3	28.5	103.9

* 國土統一院 (1982. 1)

나. 戰後復舊 3 個年計劃 (1954 ~ 1956)

이 期間은 주로 전쟁동안에 입은 피해를 復舊한 時期이며 그 原動力은 다른 共產國家들로부터의 援助였다. 즉 1954 年에는 北韓財政의 33.6%가 援助로 充當되었으며 1955 年에도 이 비중은 26%나 되었다.¹⁾ 흔히 重工業優先政策實施期間으로 代辯되는 이 期間에는 (군사지향적이 될 수도 있는) 重工業部門開發이 主要産業施設 建設과 함께 進行되었으며 이는 實質적인 投資內譯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이 3 個年 計劃期間의 工業部門 總 投資額 가운데서 81%는 重工業部門에 投資되고 있고 오직 19%만이 輕工業部門에 할당되고 있다. 또한 南韓의 固定資本形成에 해당하는 基本建設投資 가운데 工業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 3 個年 計劃期間 중 基本建設投資總額은 806 億원인데, 이 가운데 工業部門 投資額은 340 億원으로 總 投資額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農業部門의 投資比率는 9.2%이며 輸送部門의 投資比重도 13.1%에 불과하였다.²⁾

결국 北韓勞動黨中央委 第6次 全員會議의 金日成演說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우리는 前後 經濟建設에서 重工業의 先次的 復舊發展을 保障하면서 輕工業과 農業을 동시에 發展시키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經濟土臺를 튼튼히 할 수 있고 人民生活을 빨리 改善시킬 수 있다.”³⁾ 는 당초 計劃의 農業과 輕工業의 同時開發推進이 重

註 1) 동아일보사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會,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別卷 北韓編), 1972.

2) 俞完植, “北韓의 財政構造”, 「東亞經濟」1, 2月號, 1973, p. 39.

3) 北韓勞動黨 中央委 第6次 全員會議 金日成演說門 參照.

工業의 先次的 發展에 의하여 무시된 채 戰後復舊 3 個年計劃期間 中에는 投資資源配分이 工業部門에 優先的이었고 특히 重工業部門에 比重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 南韓은 주로 國民의 衣·食·住를 해결하는데 優先的이었으며 이런 차이점이 이후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진영과의 體制上 發展戰略 차이이면서 동시에 根本的인 對立으로 南·北韓에 침예화되면서 나타나게 된다.

이 期間의 年 平均工業成長率은 以前의 期間에 비해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은 41.7%을 記錄하게 되며 이러한 重工業優先政策은 歲出總額의 擴大를 가져 와 1953 年の 4.96 億원 規模에서 1955 年에 처음으로 10.06 億원으로 10 億代를 돌파했지만 國民總生産成長率 (growth rate of GNP) 은 計劃期間의 마지막 年度인 1956 年에 2.7%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限界를 보여주어 새로운 計劃의 出現을 必要로 하게 되었다.

<表 1-3> 北韓의 歲出總額 (單位: 1 億)

年 度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額	0.71	1.37	1.97	2.0	2.38	4.02	4.96	8.06	10.06	9.56

- * 國土統一院, 北韓豫決算報告書分析, 1979.
- * 歲出構成은 人民經濟費, 社會·文化施設費, 國家管理費임.

<表 1-4> 北韓의 國民總生産成長率

年 度	1953	1954	1955	1956
率	15.9	49.7	15.9	2.7

- * 國土統一院 (1982. 1)
- * 不變價格基準으로 實質成長率을 算出해야하나 不可能하여 經常價格成長率로 比較함.

<表 1 - 5> 北韓의 國民總生産額과 1人當國民總生産額

(a) : 單位—美國 億弗 (b) : 單位—美國 弗

區分 \ 年度	1953	1954	1955	1956
(a)	4.4	7.4	7.3	7.5
(b)	58	57	66	67

* 國土統一院 (1982. 1)

* 換率은 弗 : 北韓 원 = 1 : 2.57 로 換算함.

다. 第 1 次 5 個年經濟計劃 (1957 - 1960)

이 期間 동안의 5 個年經濟計劃은 원래 1957 年부터 1961 年까지 實施 될 計劃이었으나 1959 年에 本計劃을 終結짓고 1960 年을 緩衝期로 設定 하였다. 이 期間 동안의 目標은 工業生産을 1956 年の 2.6 培로 增加시키고 그 중 生産財生産은 2.9 培, 그리고 消費財部門은 2.2 培 각각 增加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5 個年計劃期間 동안의 基本建設投資總額 1,470 億원 중에서 55 %인 808 億원을 工業部門에 投資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農業部門과 輸送部門에의 投資比重은 각각 8.7 %와 10 %에 不過하였다.⁴⁾

基本建設投資總額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工業部門의 投資內譯을 보면 重工業部門과 輕工業部門에 83 : 17 의 比率로 財源을 配分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5 個年計劃의 優先順位는 戰後復舊 3 個年計劃의

註 4) 俞完植, 앞의 책, P. 39.

경우와 마찬가지로 工業에 優先을 둔 것이며 특히 重工業에 繼續적으로 優先順位를 둔 것이었다. 中·蘇의 對立이 첨예화되지 않은 1958 年까지는 共產圈으로부터의 支援도 좋았으며 따라서 그들은 比較的 높은 成長率을 이룩하면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完成시켜 나갔다.

다른 部門의 統計를 正確히 찾을 수 없는 狀況에서 1957年부터 1959 年까지 그들 자신의 發表에 따르면 生産財의 生産은 47%씩 增加하였고 消費財生産은 年 平均 44%씩이나 增加하여 戰後復舊 3 個年計劃의 年 平均 成長率인 42%水準을 상회하였다고 하였으나⁵⁾ 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London) 에 따르면 이 5 個年計劃 全體期間의 年 平均 工業成長率은 36.6%로 繼續적으로 成長率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工業部門의 절대적 진보를 위해 3 個年計劃의 鑛工業部門 投資比率 49.6%를 넘는 51.3%를 鑛工業部門에 投資하였지만 1957 年の 國民總生産成長率이 26.1%로 급격히 增加한 것이외에는 1958 年에 22.2%, 1959 年에는 12.2%水準으로 떨어짐으로써 둔화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全體經濟의 物量構造가 커지면서 생기게 되는 이러한 成長率의 둔화라는 딜레마 속에서도 1958 年에는 北韓의 1 人當 國民總生産이 100 년대 水準을 넘어서 南韓의 經濟水準을 凌駕하게 되었고 1960 年에는 급기야 南韓과 1 人當 國民所得에서 큰 차이로 앞서게 되자 그들은 이 고순적 發展을 재조정하는 데 과감히 나서게 되었으며, 南韓의 混亂에 편승한 이러한 經濟的優位는 그들로 하여금 이 5 個年計劃의 전

註 5) 東亞日報社, 앞의 책, pp. 504 ~ 505.

면중단을 전혀 주저하지 않게 하였다.

<表 1-6> 1人當 國民總生産額 (單位: 弗)

區分 \ 年度	1957	1958	1959	1960
南 韓	89.7	93.2	94.8	94.4
北 韓	85	104	117	137(120)

* 괄호안은 國家安全企劃部 추계수치이고 世界銀行이 155.3 弗, 美國 CIA와 軍備縮局이 155.3 弗, Pong S. Lee 가 133.5 \$, Mark Gayn 이 155.3 \$로 각각 다르게 추계하였지만 앞으로는 계속 설명없이 國土統一院 발표치를 使用한다.

<表 1-7> 國民總生産增加率 (單位: %)

區分 \ 年度	1957	1958	1959	1960
北 韓	26.1	22.2	12.2	17.7

* 國土統一院 (1982. 1)

라. 第1次 7個年經濟計劃 (1961 ~ 1970)

이 7個年計劃의 基本目標에서만 보아도 그들의 重工業優先發展戰略은 바뀌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전의 計劃期間과 다른 점이 있다면 輕工業과 農業에 대한 併行發展을 強調하고 技術革新에 대한 關心이 增大되었으며 人民生活의 向上에 대한 關心이 높아진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7個年計劃期間동안 基本建設投資總額 중 전체의 58%를 工業部門에 投資하는 데에는 큰 變動이 없지만 農業部門에 대한 投資가

12%로 10%線을 넘어섰으며 輕工業에 대한 關心도 커져서 年 平均投資가 工業總投資額의 28%를 차지하여 前計劃과 대조를 이룬다.

<表 1-8> 北韓의 鑛工業投資比率

(鑛工業投資額 / 總投資額) (單位: %)

戰後復舊 3 個年計劃 (1954 ~ '56)	49.6 %
1 次 5 個年計劃 (1957 ~ '60)	51.3 %
1 次 7 個年計劃 및 3 年延長 (1961 ~ '70)	60 %

*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1983. 12, pp. 30 ~ 31.

—이하 國土統一院 (1983. 12)로 씀.

하지만 절대적인 水準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資源의 一方的인 重工業偏重配分이 强要되고 있으며 根本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음은 確實하다.

이 7 個年計劃의 生産目標를 보면 目標年度인 1967 年の 工業總生産은 基準年度인 1960 年 工業總生産의 3.2 培로 增加시키고 工業總生産額의 年平均增加率을 18%로 할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그러나 3 年씩이나 延長되면서 推進된 이 計劃은 年 平均 工業成長率이 12.8 로 원래計劃인 18%에 훨씬 未達하는 것이었으며 더군다나 그 成長率이 급속히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重要的 意味를 갖는데, 그것은 北韓이 항상 工業優先主義에 總力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일단 重工業投資比率이 계속 增大되는 가운데 이런 현저한 減少와 目標未達現狀은 中·蘇紛爭의 狀態속에서 軍수산업병진의 重工業優先이라는 目標의 根本的 모순 때문이며 이것은 급기야 이 計劃 중 輕工業部門 投資比率 28%를 60 年末 15%水準으로 떨어뜨리는 壓力까지 주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表 1-9> 段階別 年 平均 工業成長率

初期準備期 (1947 ~ '50)	49.9 %
3 個年計劃 (1954 ~ '56)	41.7 %
5 個年計劃 (1957 ~ '60)	36.6 % (38.4)
7 個年計劃 (1961 ~ '70)	12.8 %
6 個年計劃 (1971 ~ '76)	16.3 %
2 次 7 個年計劃 (1978 ~ '84)	12.2 %

* E.I.U., 1985 № 2, p. 31.

* 팔호안은 東亞日報社, 앞의 책, p. 503.

이때 重化學工業優先政策에 새로이 北韓經濟의 한 根本要素로 등장한 것이 1966年 10月 勞動黨代表者會議에서 제창된 自力更生原則과 國防·經濟併進政策의 採擇이다. 그 經濟開發戰略의 모순점과 長·短期의 이론적 問題에 대해서는 2장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自力更生の 原則이 短期的 效果에서는 優越하나 長期的으로 經濟發展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歷史的 經驗과 國防·經濟併進政策의 資源配分 非效率性만을 일단 지적함으로써 1次 7 個年計劃과 이후의 經濟發展에 惡影響을 미쳤음을 얘기해 둔다.

이 期間 中の 業績을 보면 工業成長率의 目標未達과 함께 둔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自力更生과 重工業優先主義의 短期的 業績이 아직 優勢하였다는 점에서 短期的인 面에서 낙관적인 時期였

다. 예를 들어 1人當 國民總生産이 이 期間 중 163 \$에서 286 \$로上昇하는데 아직 南韓에 비해 상당히 높은 優位性を 確保하고 있었다.

<表 1-10> 1人當 國民總生産額

(單位: 美國 弗)

年度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南 韓	94.9	96.1	101.6	107.2	114.4	131	142	169	210	243
北 韓	163	179	185	194	192	192	202	225	230	286

* 國土統一院 (1982. 1)

<表 1-11> 北韓의 國民總生産成長率

(單位: %)

年度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成長率	18.8	11.9	6.1	7.3	1.8	2.8	7.9	14.6	4.8	27.7

* 國土統一院 (1982. 1)

그러나 國民總生産增加率에 있어서는 南韓에 비해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바로 이 점이 北韓經濟에는 아주 중요한 長期的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農業部門에 대해 보면, 初年度인 1961년에 비해 오히려 쌀의 町步當生産量이 떨어지는 現狀까지 보이며 지지부진하여 결국 처음의 計劃과는 달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表 1-12> 北韓의 쌀 町步當生産量

(單位: 10 kg)

年度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生産量	249	239	223	228	233	238	243	248	253	259

* 國土統一院 (1982. 1) 換算.

* 北韓은 粗穀概念인 알곡으로 發表.

<表 1-13> 北韓의 쌀 生産量 (單位: 萬 t)

年度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生産量	129	127	118	121	125	130	134	138	143	148

* 國土統一院 (1982. 1)

오직 國民醫療水準의 向上問題에 있어서 만은 비록 절대적으로 열악하더라도 政策的 強調로 因하여 이 期間 중에 비약적인 發展을 보인 것이 厚生側面에서 두드러 진다.

<表 1-14> 北韓의 人口 萬 名當 醫師數 (單位: 名)

年度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醫師數	3.7	4.0	4.3	4.5	4.7	4.9	5.2	5.5	5.7	5.9	6.2

* 國土統一院 (1982. 1)

결국 이 第1次 7個年計劃期間 (1961 ~ 1970) 중의 실적은 그들의 현시적 目的인 對南 經濟力優位의 측면에서 보아 靜態的 · 短期的으로 아직한 낙관적이었지만 動態的 · 長期的 狀況으로 보아 그들이 자랑하는 工業部門으로부터 이미 相對的成長率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國民總生産의 增加率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으며, 또한 初期에 區別되는 特徵으로 지적되었던 農業部門과 輕工業部門의 均衡發展戰略도 國防 · 經濟併進策과 重工業優先主義에 밀려 오히려 相對的으로 후퇴되는 경향까지 보였다.

마. 6 個年經濟計劃 (1971 ~ 1976)⁶⁾

1960 年代 실시한 7 個年經濟計劃의 結果로 工業構造가 어느 정도 基本的으로 構築되었다고해도 北韓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自力更生에 立脚한 閉鎖經濟에서 나타난 모든 生産施設의 舊式과 老朽化였으며 生産性의 低位와 낮은 效率성은 큰 問題로 대두되어 實質적으로 모든 部門에서 成長率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基本目標를 ‘工業化의 成果를 公고히 發展시키는 가운데 技術革命의 차원을 높인다’는 것으로 삼아 造船, 機械 등에 投資하고 최초로 石油化學工場建設에 착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農業部門에도 좀더 많은 재원할당을 試圖하였다. 이 期間중 基本建設投資의 配分內容을 보면 工業部門에 49%를, 農業部門에 18%를, 輸送部門에 9%를 각각 配分하고 있다.⁷⁾ 그리고 工業部門의 投資는 다시 重工業에 83%를, 輕工業部門에 17%를 配分할 것을 계획하여 工業總生産은 計劃期間 중 2.2 배로 增加시킬 것을 目標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生産財生産은 2.3 배로 늘리고 消費財生産은 2 배로 增加시킬 것을 計劃하였다.

결국 重工業위주의 工業發展戰略을 계속 推進하는 가운데, 1973년과 1974년의 호황에 편승해 工業生産의 年 平均 目標成長率인 14%를 상회하여 16.3%의 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미 앞서서부터 지적되었던 經濟戰略의 각종 長期的, 動態的 問題點들이 短期的 長點을 넘어서면서

註 6) 이 6 個年計劃은 75 年 8 월에 中斷되고 76, 77 年 2 年은 完充期로 정해 극히 未達部門에 대해 集中的으로 投資하였다.

7) 東亞日報社, 앞의 책, p. 502.

(이는 자세히 2장에서 설명된다.) 産業部門間的 不均衡, 科學技術의 不振, 資源의 浪費에 따른 不足한 資源의 고갈 등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러 1975年 8月末에 사실상 中斷되게 되었고 鐵鋼, 시

<表1-15> 北韓의 國民總生産增加率 (單位: %)

年度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增加率	2.8	12.8	25.2	15.9	11.3	8.6	7.8

- * 國土統一院 (1982. 1)
- * GNP 디플레이터로 계산해 줌.

멘트 등 기본재에 대한 目標은 훨씬 未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人當 國民總生産面에 있어서도 그동안 經濟發展의 제일목적이었던 對南優位의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모든 經濟戰略의 실패를 드러내게 되었고, 당황한 北韓은 암묵적으로만 인정하던 對外貿易에 적극 의존하려

<表1-16> 1人當 國民總生産 (單位: 美弗)

年度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南 韓	278	306	386	523	573	765	965
北 韓	308	316	418	461	579	585	642

- * 國土統一院 (1982. 1)

는 경향을 드러냄으로써 主體思想과 西方世界와의 접촉이라는 갈등을 노출시키게 되었으니 그 구체적 예가 1974年 7月の 外債問題발생으로 나타났다.

<表 1 - 17> 北韓의 對外거래

(單位：百萬弗)

년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수입액	439	503.5	639.7	842.7	1,303.1	1,092.7	800	820
무역수지	-73	-98	-241	-345	-626	-274	-72	-140

* 國土統一院 (1982. 1)

마침내는 重工業部門成長의 不振, 基本建設目標의 未達, 輸送을 비롯한 社會間接資本部門의 극심한 침체 등으로 6個年經濟計劃은 1975年 8月에 中斷되었고 이어 北韓은 1976年과 1977年 2年을 특히 未達된 製鐵部門, 시멘트, 財政收支의 改善, 各種工場의 老朽施設代替등을 강화할 外貨誘致事業에 주력하였는데 이는 6個年經濟計劃의 전면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 동안의 經濟開發推進에서 스스로가 만들어 온 비신축성은 長期的으로 北韓을 모순구조 속에 빠지게 하였고 마침내는 새로운 先進技術과 設備의 必要性을 절감하게 되었고, 北韓으로서는 日本을 中心으로 한 서방일부와의 접촉을 試圖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로 對外債務累積과 償還不履行이라는 北韓經濟 最大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바. 第2次 7個年經濟計劃 (1978 ~ 1984)

北韓은 1985年 2月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및 科學化를 推進하며, 工業과 農業을 비롯한 經濟全般의 조속한 發展에 立脚하여 工業과 人民의 物質, 文化生活水準을 가일층 향상시킴으로써 전 勞動者가 豊요하

고, 文化的으로 生活하도록 하는 基本課題를 성공리에 遂行하기 위해서는 당과 政府가 自力更生の 革命的 방침에 立脚해야 한다.”⁸⁾ 라는 基本目標 위에서 自力更生の 원칙을 재천명하였던 2次 7個年經濟計劃의 結果를 發表했다. 國民所得 (N.I)은 1977年에 비해 1.8배 상승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每年 9% 조금 안되는 정도의 增加를 보여주는 수치이며 특히 工業生産額은 年 平均 12.2%씩 增加하였다고 하였지만 이는 해방 후 이제까지의 모든 計劃期間 중 가장 낮은 工業成長率이었다. 이중 生産財가 2.2倍, 消費財가 2.1倍 增加하여 아직도 生産財선호가 바뀌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엄청난 經濟計劃의 失敗로 보아 石炭, 시멘트, 化學肥料, 纖維등의 生産이 目標量을 超過했다고 하는 것은 전력, 鐵鋼材, 非鐵金屬 등에서 상당히 크게 目標生産量에 未達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電氣도 年間 8.5%의 增加를 보여주는 기준연도비 178로 發表했는데, 部門別로 보아 年間 自動車工業의 2.5% 成長率은 自體技術開發의 問題點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表 1-18> 北韓의 主要工產品 生産增加率 (單位: 77年比 84年, %)
(1978~1984)

電 氣	178	化 學 纖 維	180
石 炭	150	인 조 수 지	240
鋼 材	185	시 멘 트	178
機 械 機 具	167	纖 維, 옷 감	145

註 8) 北韓最高人民會議 第 6 期 1 次會議 金日成演說文 (1977.12.17)

트랙터	150	신발	153
採炭機	420	水産物	220
化學肥料	156	영양식료, 사치재	220
自動車	120	日用消費品	250

<表1-19> 年平均主要工業財增加率

(1978 ~ 1984) (單位 : %)

電氣	8.5	트랙터	6
石炭	6	自動車	2.5
鋼材	9	機械, 機具	7.5

* E. I. U., Quarterly Economic Review of China, North Korea, 1985 No. 2, p. 31.

* 本 수치는 北韓이 發表한 것이므로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相對的 評價는 할 수 있으므로 引用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第2次 7個年計劃은 엄청난 失敗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計劃目標의 55%라는 극히 저조한 실적에서 볼 수 있다. 또한 1985年 4月 7日字 勞動新聞에서 “당면한 최대주요과제가 수출진흥이다”고 역설하고 主要 輸出品인 시멘트와 非鐵金屬生産에 주력하여 外債를 갚아 나가자고 強調하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의 外債問題가 이미 限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消費財部門의 不足과 社會主義國家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失業難까지 겹쳐 이 2次 7個年經濟計劃의 失敗를 스스로 認定하고 있는 셈이다.

貿易赤字를 보면 1971년부터 1983년까지 總額이 27億 5600萬弗인데

이는 수출입상품구조에서의 필연적인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며 이는 바로 技術水準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표 1 - 20> 北韓의 무역수지

년 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수 입	1001 (960)	1284 (1160)	1738 (1739)	1750	1800	1550
무 역 수 지	18 (-10)	38 (-10)	-297 (-298)	-320	-300	-170

* 徐極性, 「北韓의 經濟實象」, 民族統一中央協議會, 1985, p. 181

에서 재인용

* 國土統一院, 조선중앙연감, 세계은행, U.N. 통계 등에서 뽑음.

* 괄호안은 國土統一院 (1982. 1) 발표수치임

<표 2 - 21> 南·北韓 輸出商品構造 (1983) ; %

	南 韓	北 韓
1 次 商 品	6	59
2 次 商 品	94	41

*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分野 交流協力 實踐方案 研究」, 1984.

12. p. 35. 이하 國土統一院 (1984. 12) 로 씀.

또한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쌀 町步當 生産量이 오히려 떨어져 그나마 겨우 배급통제 하에서 자급자족의 수준까지 올려놓았던 식량문제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표 1-22> 북한의 쌀 생산량과 생산성

年度	1977	1978	1979	1980
쌀 生産量 (單位: 萬 t)	182	178	176	124
增 加 率 (%)		-2.2	-1.1	-29.5
1町步當 生産量 (單位 10 kg)	296	286	282	200
增 加 率 (%)		-3.4	-1.4	-30.5

* 國土統一院 (1982. 1)

<표 1-23>北韓의 食糧作物 生産量 (單位: 정곡기준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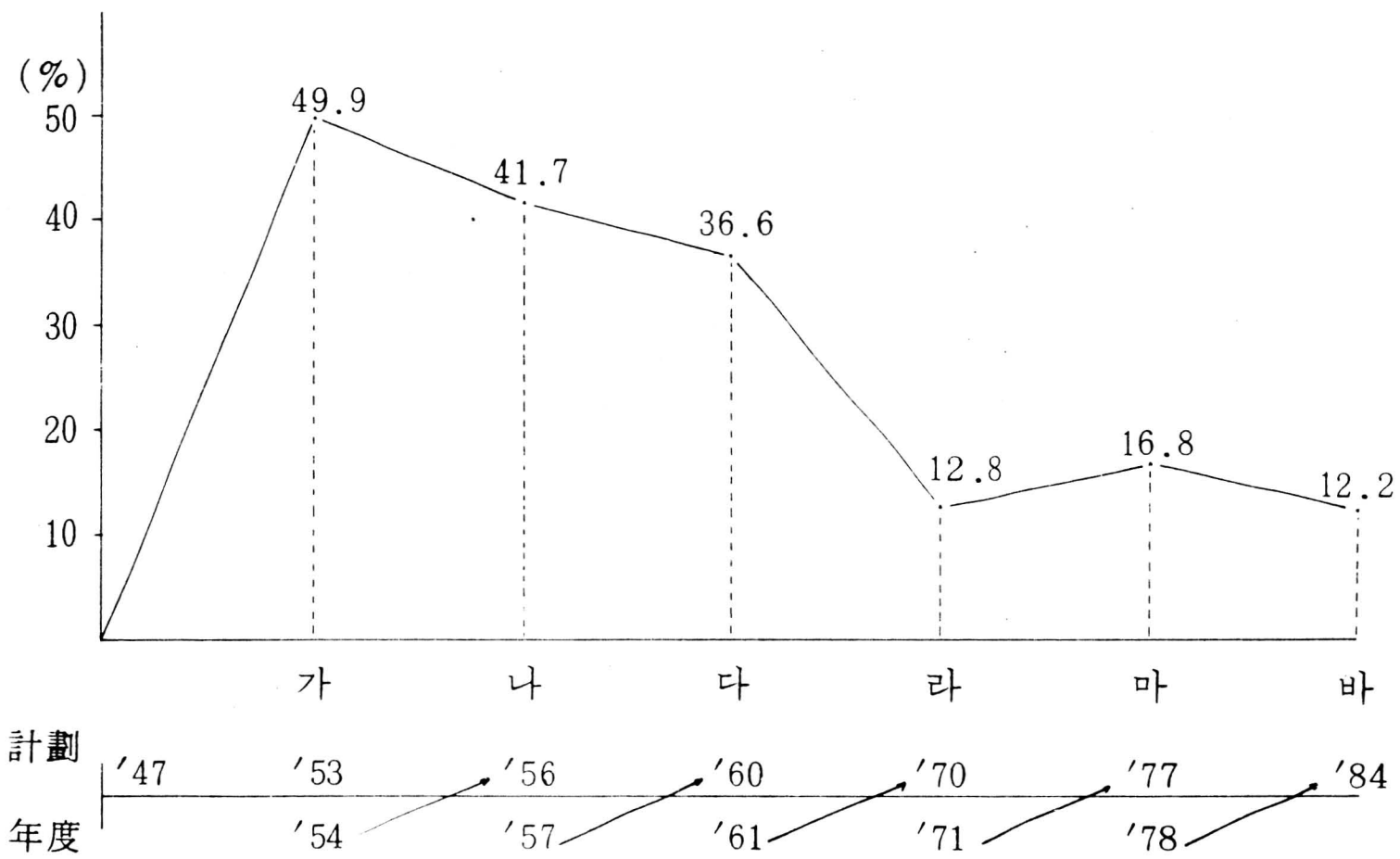
년도	구분	곡 물	서 류	합 계
1978		4357	212	4569
1979		4574	223	4797
1980		3710	200	3910
1981		5105	263	5368
1982		5189	270	5459
1983		3990	270	4260

*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1984. 11. p. 44. 이하
國土統一院 (1984. 11) 로 씀.

북한의 經濟發展에서 나타난 外債累積, 技術의 부족, 消費財를 비롯한 輕工業部門 취약, 에너지 부족, 食糧부족등은 다시 다음에서 理論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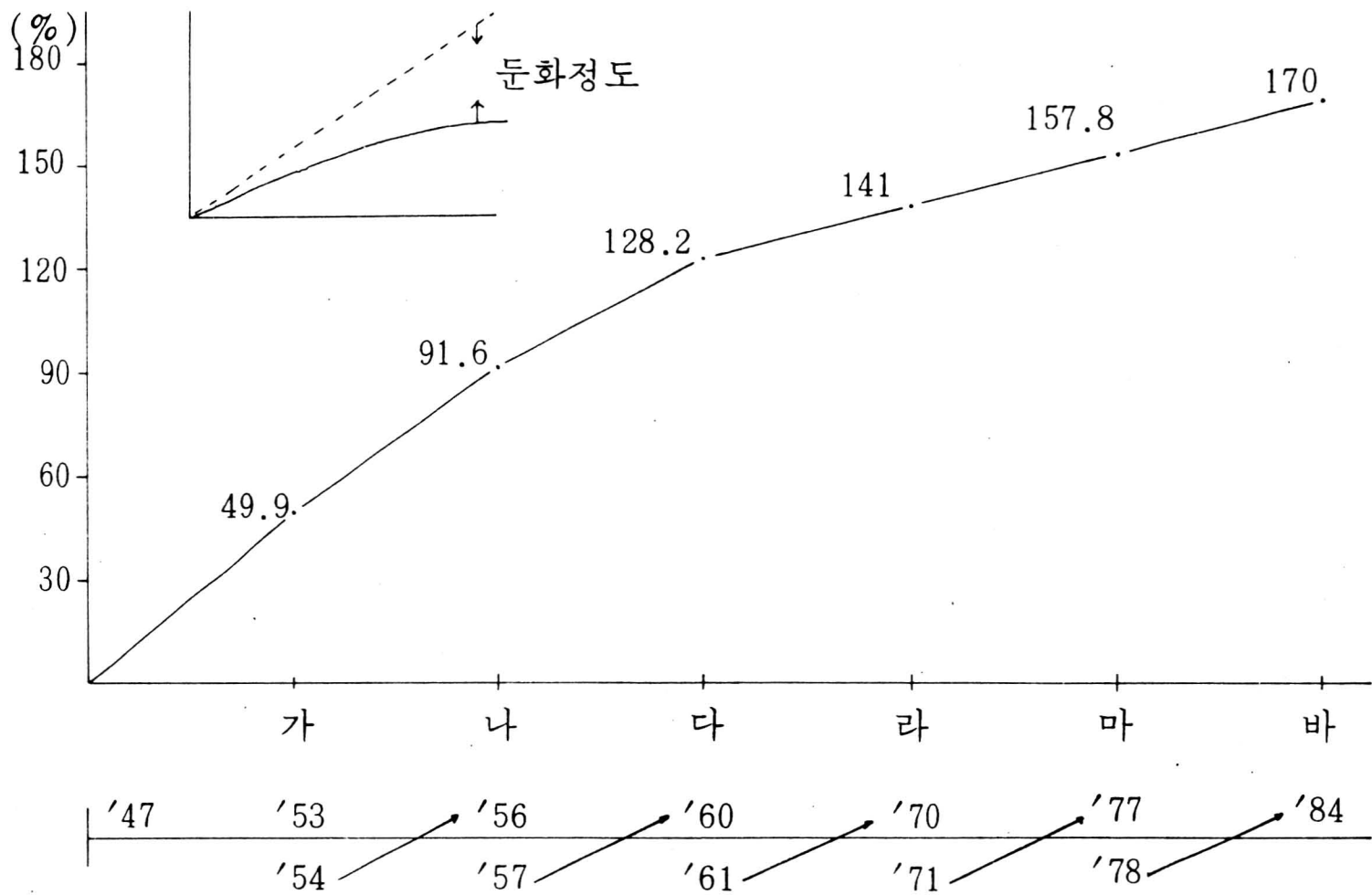
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우선 그동안 해방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지표면에서 모형화하여 보도록 하자. 국민총생산 변화율은 GNP 디플레이터가 발표되지 않은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그림 1-1> 年平均工業成長率(北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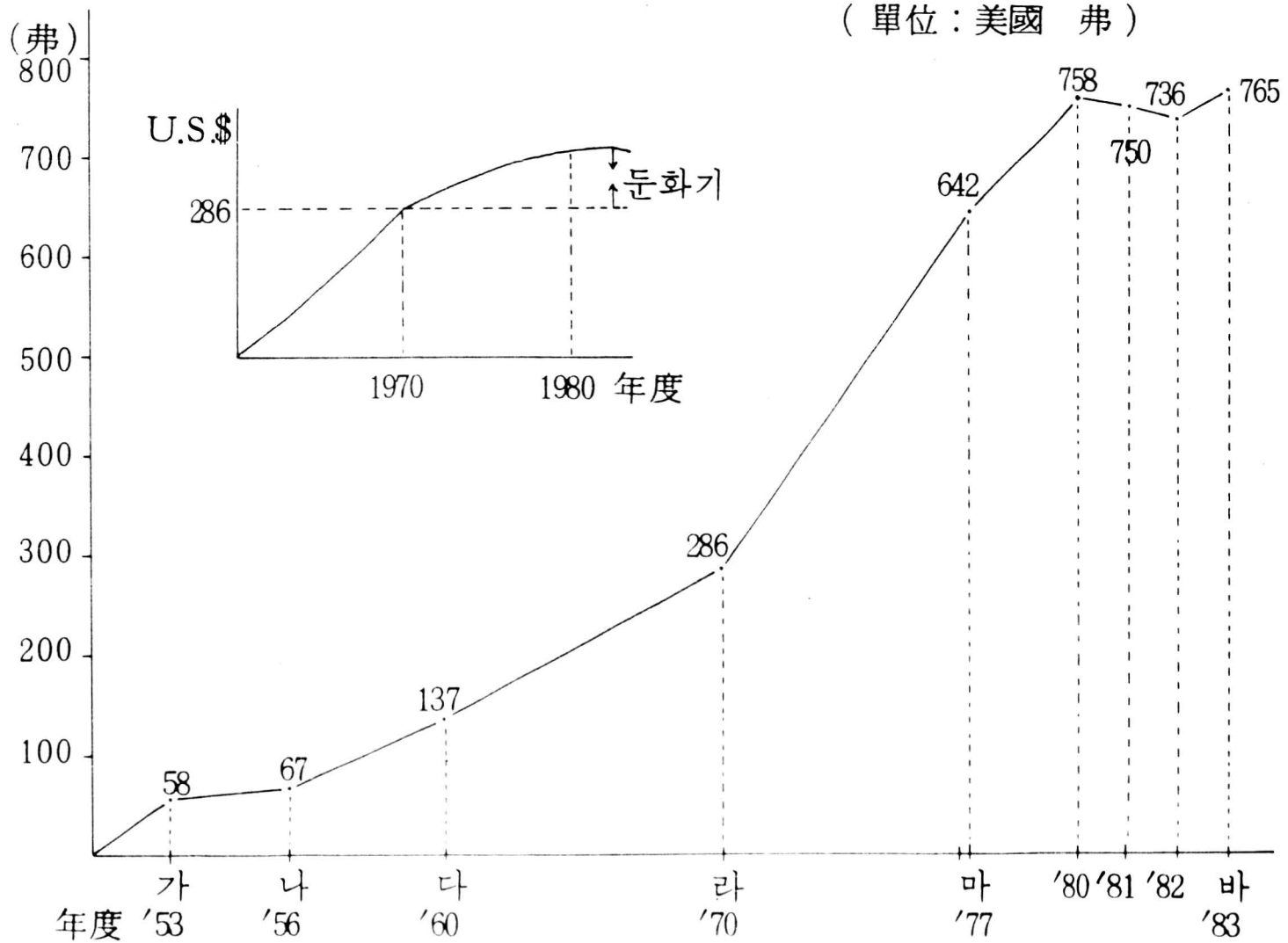
* 가, 나, 다, 라, 마, 바는 앞의 計劃年度別 分類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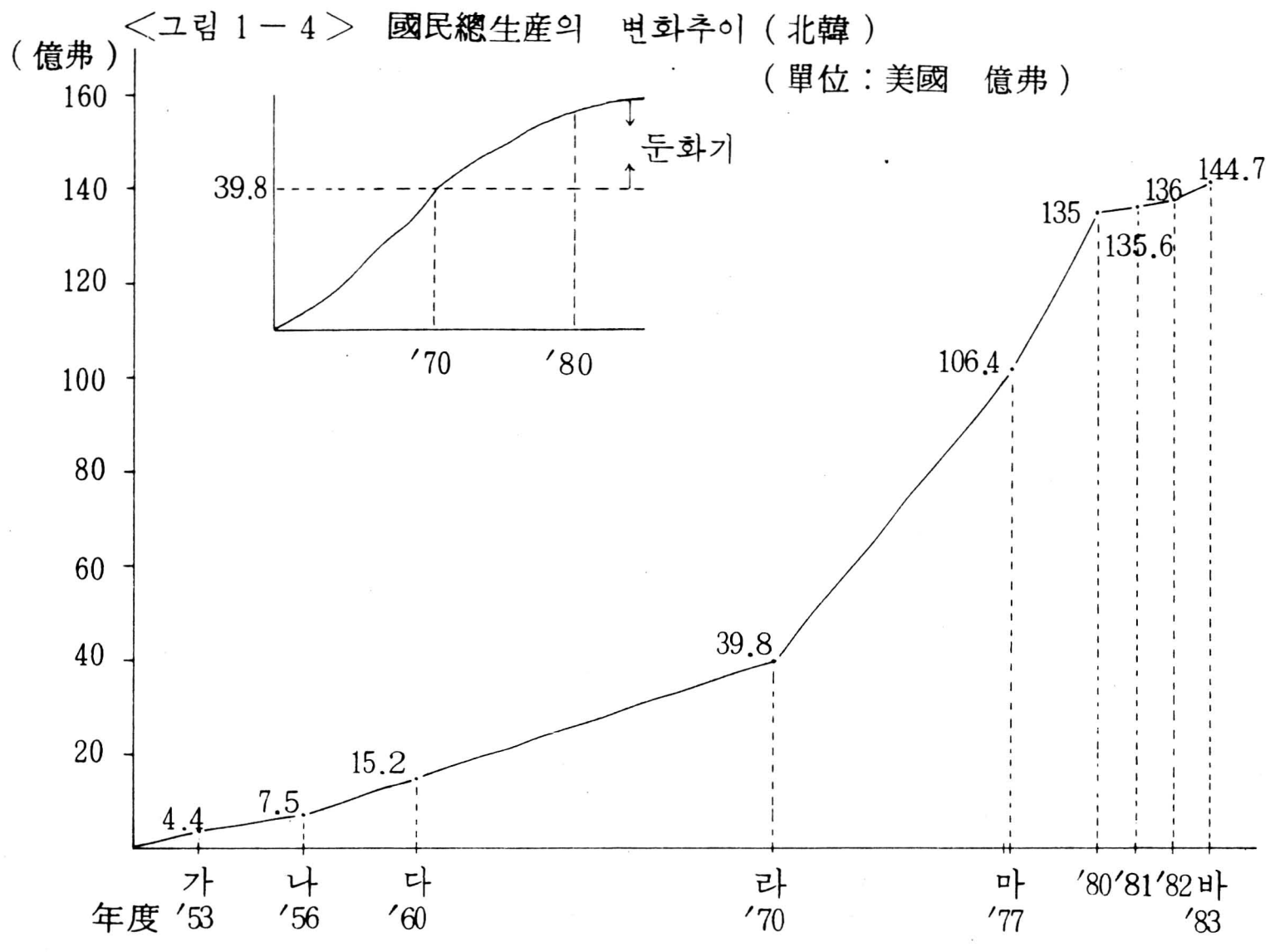
<그림 1-2> 年平均工業成長率累積(北韓)



<그림 1-3> 1人當 國民總生産의 變化(北韓)

(單位:美國 弗)





결국 主要經濟지표가 근차에 모두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限界性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음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北韓의 經濟發展戰略

— 發展의 限界性 규명을 중심으로 —

우리는 앞에서 해방이후 1984년에 이르는 北韓經濟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成長率의 둔화와 함께 長期的인 限界性이 短期的인 효율성을 넘어 뚜렷하게 들어나기 시작함을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에서 들어난 限界性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앞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들어난 경제발전전략인 重工業優先, 自力更生, 國防·經濟併進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뒤에서 이 세 경제논리는 결국 自力更生으로 묶어질 수 있음을 보았겠지만 일단 분류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國家權力の 善意'에 입각하여 大衆의 福利增進을 그 목표로하고 있다. 따라서 初期에 社會主義國家들은 스탈린식의 경제발전전략을 모두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것은 크게 重工業優先의 工業化戰略과 아우타르키 (autarky) 經濟構造를 지향하게 된다. 북한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스탈린식의 經濟發展戰略을 채택한 소련 및 동구 공산권국가들이 이미 나름대로의 경제개발전략을 보완, 수정해 나가는 데 비하여 北韓은 필요이상의 主體的, 非彈力的 經濟計劃을 운용함으로써 비능률을 자초하고 있는 점이다.

우선 重工業優先原則은 이미 1954년에서 1956년까지 실시된 戰後復舊 3個年計劃에서부터 스탈린식의 '生産財優先원칙'을 답습하여 강조되었

다. 이런 점은 1963년 5월 北韓勞動黨 中央委員會 제4기 제6차 全 員會議 김일성 연설문과 北韓勞動黨 제3차대회 기본방향공표이후 항상 모 든 계획의 기본목표에서 강조되었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후 自力更生原則 이 강조되면서 계속 고수되어 투자액 배분에 있어서도 이미 앞에서 보 았던 대로 重工業投資가 전체투자액 중 49.6% (1954-1956), 51.3% (1957-1960)로 계속 높았고 1차 7개년계획에서는 60% 이상으로 치 솟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또한 工業投資比率에 있어서도 1차 7개 년계획을 제외하고는(이 기간도 후기에 가서 85%수준으로 다시 조정 된다.) 계속 80%이상이 重工業에 투자되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표 2-1> 重工業 對 輕工業 投資比率(北韓) : %

戰 後 復 舊 3 個 年 計 劃	81.8 : 18.9
1 次 5 個 年 計 劃	82.6 : 17.4
1 次 7 個 年 計 劃	72 : 28 후에 85 : 15
6 個 年 計 劃	83 : 17

* 國土統一院(1983.12), PP. 30 - 31.

生産手段의 우선적 성장없이는 技術發展과 勞動生産能率의 成長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 重工業部門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때문에 消費財部門과 農業은 계속 投資優先순위대로의 財源配分에서 절대량부족을 겪어 왔으며, 이는 실질적인 국민후생수준의 후퇴와 함께 經濟發展에 있어 市場이 좁은 북한으로서 치명적인 再生産構造 결핍현상을 수반한다.

결국 농업에 대한 자원배분의 상대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양의 부족은 1970년 후반이후 그들의 자급자족 과잉선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食糧問題를 들어냈는데 1982년 북한이 발표한 알곡 950만 톤은 정곡으로 426만 톤인 데 이는 북한이 1983년도 전 주민 취식용 약 100만 톤(인구×600g), 飼料用, 加工用 약 100만 톤, 種子 및 기타 25만 톤 등 총식량수요량 545만 톤에 비해 약 120만 톤의 절대량부족을 낳았다.⁹⁾

<표 2-2> 北韓의 쌀 町步當 生産量 (단위: 10kg)

년도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79	1980	1983
쌀 정보당 생산량 (단위: 10kg)	186.4	150	206	221	223	259	288	282	200	297
증가율(%)		-19.5	37.3	7.3	5.4	11.2	11.2	-2.1	-29.1	48.5
쌀 생산량 (단위: 萬톤)	72.3	57.3	97.2	110	125	148	173	176	124	
증가율(%)		-20.7	69.6	13.2	13.6	18.4	16.9	1.7	-29.5	

* 國土統一院 (1982. 1).

* 1980년은 냉해로 갑자기 감소됨.

또 重工業優先주의 원칙은 消費財部門의 감소와 함께 일방적인 일부분 투자에 의한 과잉설비투자를 가져왔는데, 이는 1985년 1월 노동신문에서 消費財部門에 좀 더 많은 생산기여운동을 벌리자는 캠페인과 그 목적을 고용증대에 두고 있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직접

註 9) 國土統一院, 「김정일체제 등장과 경제정책 전개방향」, 1983 p.13

적으로 輕工業, 農業 등의 육성에 의한 추가수요의 뒷받침 없이 중공업의 일방적인 과잉설비투자에 따른 稼動率 하락(물론 에너지난, 기술난 등도 큰 요인이다.)과 그에 따른 失業率 上昇, 그리고 생활필수품, 소비재 부문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보여주는 한 예라 생각된다.

<표 2-3>北韓의 주요 경공업제품 생산능력 (1983)

區 分	單 位	北 韓
織 維	萬 屯	12.8
織 物	億 m	6
신 발	百 萬 足	52.1
판 유 리	萬 m ²	2322.5

* 國土統一院 (1984, 11), p.60.

이는 바로 다시 경제순환구조상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또한 그들이 목표로 삼는 自力更生原則과 가장 잘 부합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모순을 보여준다.

또한 輸送部門에 대한 投資不足은 북한경제의 고질문제인 수송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러한 원인은 산악이 많고 동서해안이 분리되어 있고 하천이 대부분 급류라는 지형적인 것에서 흔히 지적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다보니 수송부문의 장기적, 대규모 투자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표 2-4>北韓의 輸送部門 기초실태 (단위: km)

* 1945년 도로총연장은 발표되지 않음

년도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철도총연장	3814.7	3814.7	3886	4233.1	4348.6	4287.4	4590.7	4650
증가율(%)		0	1.9	8.9	2.7	-1.4	7.1	1.3
도로총연장		14238	17682	19875	20140	20458	20670	20967
증가율(%)			24.2	12.4	1.3	1.6	1.0	1.4

* 國土統一院 (1982.1)

* 철도총연장은 1969年 北鎭線, 八院線 일부 제거로 줄어듬.

<표 2 - 5> 輸送現況 (1983) : 北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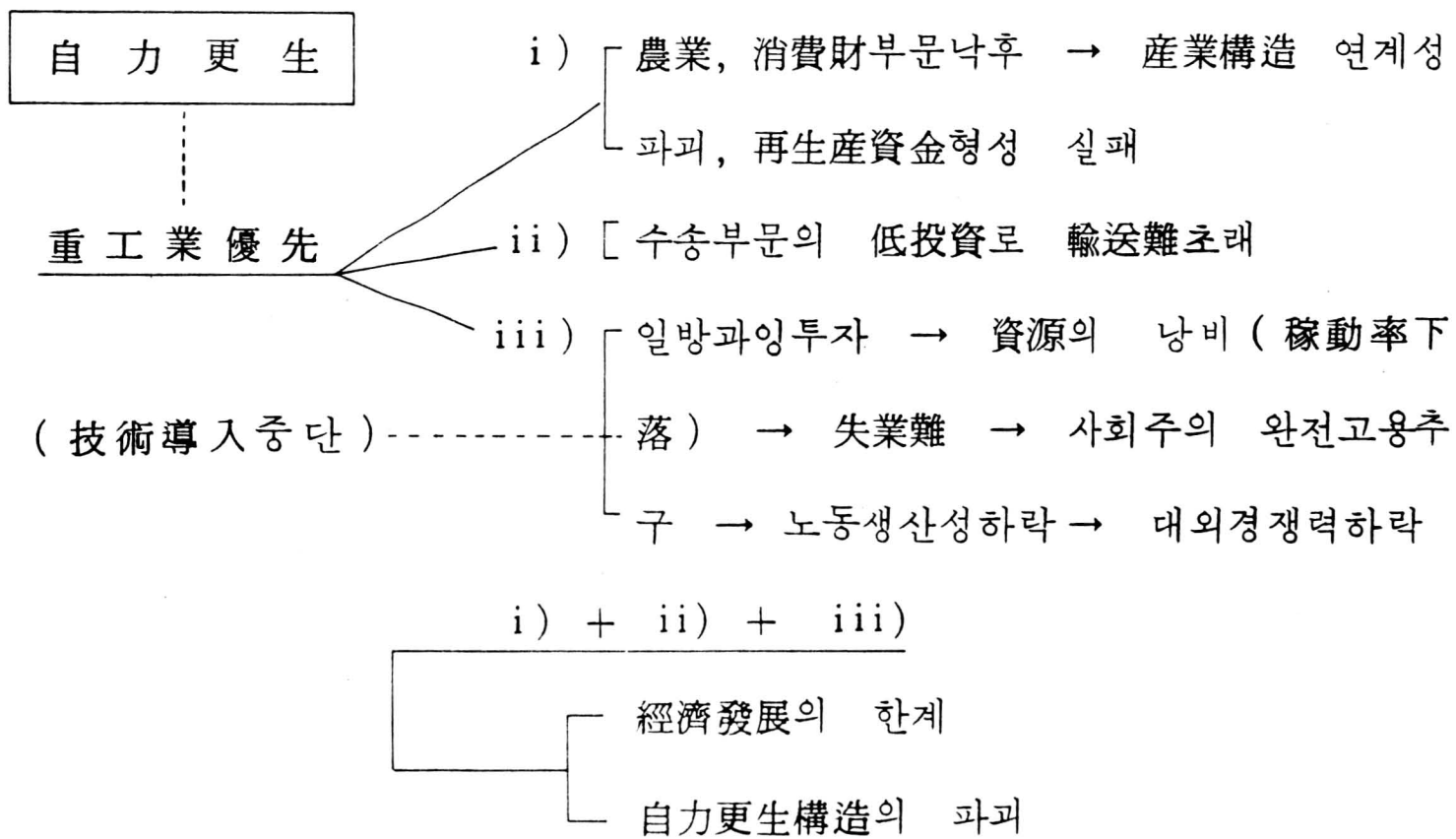
區 分	單 位	現 況
鐵 道 總 延 長	km	4,441
(電 鐵 化 區 間)	km	2,636
道 路 總 延 長	km	21,000
(高 速 道 路 區 間)	km	240
自 動 車 保 有 臺 數	萬 台	18.9
港 灣 荷 役 能 力	百 萬 屯	32.8
外 港 船 保 有 屯 數	萬 屯	62
航 空 機 保 有 台 數	台	17
國 際 路 線	個 國 (市)	2(3)

* 國土統一院 (1984. 11), p 64

그리고 이런 중공업우선의 工業化戰略은 産業構造의 연계성을 파괴하

여 全體 經濟構造의 과행성을 가져다 주는데, 이런 과행성은 再生産構造를 붕괴시키고 또한 앞에서 지적인 消費財産業 침체 등에서 오는 再生産資金의 형성을 억제하여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현재 북한의 計劃經濟가 당면한 한계성이 되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그나마 부족한 資源의 낭비가 엄청나 再投資資源이 고갈되고 있다. 여기에 또 중공업은 건설후에도 계속적으로 高度의 運用技術이 요구되고 새로운 技術과 設備를 빨리 도입하지 못하면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하는데에도, 북한은 당면한 外債累積으로 技術導入마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제에 더욱 더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重工業優先主義원칙은 다음의 결과로 도식화된다.



두번째로 북한이 그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계속 강조하였고 또 사실 근본 3大경제전략을 포괄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自力更

생의 원리를 보자. 自力更生論은 먼저 貿易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이 되며 이는 시장이 협소한 북한으로서는 規模의 經濟를 포기한다는 것과 技術導入(특히 設備 및 要素에 體化된 기술)에 근본적인 한계를 주는 것과 같다. 市場規模가 작은 북한으로서는 수입을 억제하고 輸入代替産業을 육성시킨다는 보호무역제를 고수하게 한 이러한 自力更生論이 근본적인 한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음을 金光錫의 연구결과와 南美의 발전 사례에서 이미 보여지는 바와 같다.

김광석의 韓國(南韓)에 대한 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에 대한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국 1차차이기준 측정결과와 偏差基準測定結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방법에 의한 分析결과는 모두 시장이 좁은 한국의 경우 초기에는 輸入代替가 成長과 構造變化에 훨씬 효과가 있지만 中期이후에는 輸出擴大가 훨씬 더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은 市場이 좁은 세계의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바 南美의 예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다.

南美 여러나라들은 초기에 低資本, 低技術수준의 輸入代替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나 점차 資本과 技術의 한계와 市場制約에서 경제개발을 실패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간단한 예를 뭉크(Bernard Munk)는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경제의 손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¹¹⁾

註) 11) Bernard Munk, "The Welfare Cost of Content Protection : The Automotive Industry in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an/Feb, 1969.

〈 표 2 - 6 〉 粗生産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解結果要約, 1955 ~ 75 : 相違한 分解方法間의 比較¹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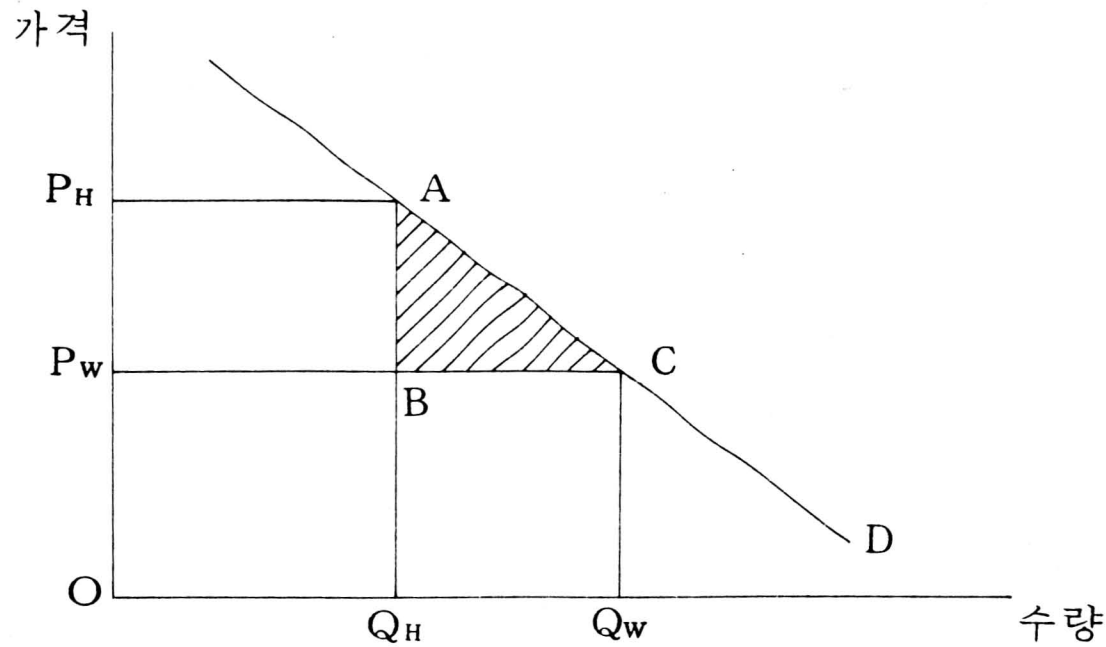
	國內需要擴大效果			輸出擴大效果	輸入代替效果			I - O係數變化效果
	計	中間財	最終財		計	中間財	最終財	
不變部門別比率方法-1次差異基準								
(1) 直接的 測定值								
1955~63	90.3	40.6	49.7	5.5	4.2	5.6	-1.4	-
1963~70	87.9	38.5	49.4	11.9	0.2	0.3	-0.1	-
1970~75	72.0	38.6	33.4	23.7	4.3	3.1	1.2	-
1955~75	78.9	38.7	40.2	18.2	2.9	2.3	0.6	-
(2) 全體的 測定值								
1955~63	78.0	-	78.0	9.2	15.9	15.8	0.1	-3.1
1963~70	80.6	-	80.6	20.5	2.4	2.1	0.3	-3.5
1970~75	54.6	-	54.6	39.7	8.7	6.7	2.0	-2.9
1955~75	65.4	-	65.4	30.7	7.0	5.7	1.3	-3.1
不變部門別比率方法-均衡成長으로 부터의 偏差基準								
(1) 直接的 測定值								
1955~63	60.0	34.2	25.8	6.9	33.1	21.3	11.9	-
1963~70	70.7	22.8	47.9	14.4	14.9	9.7	5.2	-
1970~75	59.6	32.4	27.2	27.6	12.8	8.8	4.0	-
1955~75	61.3	29.1	32.2	24.5	14.1	9.1	5.0	-
(2) 全體的 測定值								

註) 10) 金光錫, 「韓國工業化 패턴과 그要因」, 韓國開發研究院, 1980, 99.92-93

	國內需要擴大效果			輸出擴大 效 果	輸入代替效果			I-O係數 變化效果
	計	中間財	最終財		計	中間財	最終財	
1955~63	28.4	—	28.4	7.9	34.1	22.6	11.5	29.5
1963~70	48.7	—	48.7	22.0	15.6	10.4	5.2	13.7
1970~75	27.4	—	27.4	37.8	15.8	11.1	4.7	19.0
1955~75	32.5	—	32.5	36.1	17.0	11.2	5.8	14.4
不變總量比率方法-均衡成長 으로부터의 偏差基準								
(1) 直接的 測定值								
1955~63	63.7	37.9	25.8	5.8	30.5	20.8	9.7	—
1963~70	73.7	26.4	47.3	12.7	13.6	9.2	4.4	—
1970~75	63.4	37.3	26.1	22.6	14.0	12.4	1.6	—
1955~75	66.9	35.3	31.3	20.9	12.5	9.6	2.9	—
(2) 全體的 測定值								
1955~63	26.2	—	26.2	6.2	36.4	27.6	8.8	31.2
1963~70	49.1	—	49.1	19.8	14.0	9.3	4.7	17.1
1970~75	27.2	—	27.2	32.1	17.9	15.9	2.0	22.8
1955~75	32.4	—	32.4	29.9	17.5	14.6	2.9	20.2

* : 1968年 不變國內價格基準으로 換價된 1955, 1963, 1970 및 1975年の 産業聯關表資料를 사용하여 계산 됨. 但, 1955~63年間은 29個部門分類水準에서, 그리고 그후 年間에 대해서는 43個部門分類表를 사용 함. 모든 結果는 「라스페이어스」式과 「파쉬」式의 計算結果를 算術平均한 것을 나타내며 또한 1955~75 年에 대한 推定値는 1955~63, 1963~70 및 1970~75期間에 대한 分解結果를 連鎖測定方法에 의해 流 合한것임.

<그림 2-1>



곡선 D는 남미에 있어서 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곡선을 나타내고 P_w 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의 C.I.F가격이다 P_H 는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였을 때의 生産費用(正常利潤포함)을 나타낸다. 그러면 $\triangle ABC$ 가 바로 국민경제의 손실분인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非經濟的인 要因으로 自力更生을 고집함으로써 비효율성을 계속 증대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貿易規模의 零細性으로 外貨資金이 아주 부족한데 이는 북한이 수입을 억제하되, 필요한 輸入을 항상 우선으로하고 輸出은 수입에 필요한

<표 2-7>

北韓의 貿易狀況

(단위: 백만 불: %)

年度	1946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3
무역고	111.4	1044.4	105.3	320	398	805	1911.6	3179	2930
증가율		837.5	-89.9	203.9	24.4	102.3	137.5	66.3	-7.8

* 國土統一院 (1982.1) 과 國土統一院 (1984.12) 에서 발췌함

財源조달만을 위해 한다는 원칙때문에 생긴 것으로 현재 북한의 外貨는 35억불 수준으로 外債規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外債償還負擔率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外債波動을 일으켜 國際적으로 信用失墜를 가져왔고 이는 技術導入에 장애를 주는 직접적인 당면문제로 부각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앞에서 본 구조상 완전고용에만 급급한 데 따른 勞動生産性 하락, 기술낙후에 의한 상품경쟁력하락과 주로 一次産品에 의존한 輸出構造에서 생긴 근본적인 모순(交易條件의 악화)을 들 수 있다.

<표 2-8> 外債分布現況(北韓: 1983년 말)

共 産 圈	西 方 圈	計
12 億 \$	23 億 \$	35 億 \$

<표 2-9> 北韓의 輸出入 商品構造와 主要輸出品目

(가) 수출품목(1983년 기준)

육류, 馬毛, 호두, 잣, 고추, 희향초, 아니스, 피마자, 酒精, 청어, 대구, 연어, 송어, 게, 오징어, 牛皮, 고치, 생사, 과잠고치, 羊毛, 硅砂, 탄산마그네슘, 몰리브덴광, 亞鉛礦, 무연탄, 산화연, 연탄, 오린지연, 金, 銀, 銑鐵, 철강웨스트, 銅웨스트, 鉛塊, 鉛合金塊 亞鉛塊, 亞鉛合金塊 등

* 代日本輸出品目 中心임

*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分野 交流協力 實踐方案 研究」, 1984.12에서 정리

(나)北韓의 輸出入 商品構造 (1983)

區 分	輸 出		輸 入	
	金 額 (千弗)	構 成 比 (%)	金 額 (千弗)	構 成 比 (%)
動物性 生産品	33,176	26.3		
食物性 生産品	16,525	13.1		
動物性 油 脂			2,289	0.7
飲料 및 加工 食料品	7,063	5.6		
鑛物性 生産品	18,164	14.4	10,467	3.2
化學工業 生産品	4,162	3.3	27,474	8.4
樹脂, 프라스틱, 고무 및 그 製品			12,587	6.6
紡織用纖維 및 纖維製品	9,838	7.8	16,354	5.0
종 이 및 판 지 류			9,812	3.0
寶石, 貴金屬 製品	17	0.0		
機械類 및 運搬用器機			165,500	50.6
基礎金屬 製品	35,573	28.2	51,351	15.7
雜 製 品	1,640	1.3	22,237	6.8
總 額	126,149	100.0	327,077	100.0

* 輸出, 輸入은 日本과의 상품구조임.

결국 북한의 현 경제난국으로 보아 계속적인 서방과의 확대는 필연적
이므로 (전망에서 다시 논의함) 外債는 계속 누적될 전망이며 이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自力更生原則은 현 세계경제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發展要素인 技術의 도입을 억제시킴으로써 에너지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북한의 애로사항중 한 가지인 이 에너지 문제는 앞에서 말한 資本의 부족, 國際信用의 실추와 함께 소비총량의 73%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 化學工業의 원료도 石炭系列化學工業이 주축을 이루는 등 석탄수요가 지나치게 큰 데 비하여 이 기술적인 애로로 인해 電氣, 原子力에 의존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당분간 타개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표 2-10> 北韓의 에너지 소비의존도 : 1983

量·率	區分	석 탄	수력발전	석 유	신 탄
구 성 율 (단위 : %)		72.9	12.3	10.1	4.7
에너지 총량 (石油換算 萬屯) 2482 중의 절대량		1,809	305	251	117

<표 2-11> 北韓의 주요에너지 현황 (1983)

區 分	單 位	數 量
發電施設容量	萬 Kw	574
發電量	億 Kwh	236.3
精油能力	日産萬배럴	8
原油導入量	萬 배럴	1,591
石炭生産量	萬 屯	3,500
石炭輸入量	萬 屯	150 ~ 200

* 國土統一院 (1984.11), pp.51 - 52

北韓은 공작기계 제작기술 전반에 걸쳐 부품가공기술, 조립기술 등에서는 어느정도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생산공정간의 不均衡, 에너지 多消費, 勞動生産性不落 등과 함께 선진정밀기술의 도입이 自力更生의 폐쇄적 원칙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 점점 더 경제발전의 애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경제경쟁은 技術과 그 발전속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실 197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의 특징은 기술의 급속한 전진이었다.) 自力更生原則은 생산시스템의 노후화, 생산품의 국제규격 미달 등을 수반하여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는 모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표 2-12> 北韓의 주요기계제품 생산능력 (1983)

구 분	단 위	능 력 치
自 動 車	萬 臺	1.5
造 船	萬 屯	21
工 作 機 械	萬 臺	3
農 機 械	萬臺 (15.馬力 換 算 基 準)	3
T.V. 受 像 機	萬 臺	15 - 20
冷 藏 庫	萬 臺	1 - 2

* 國土統一院 (1984.11), p. 58

끝으로 軍事·經濟併進政策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962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계속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력강화문제가 한층 더 강조된 이래 1966년 10월 國防·經濟併進政策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고 그 후 세출규모에 있어 엄청난 재원을 소모해 왔다. 비록 1970년 이전까지의 40%수준을 벗어나 최근

접차 개선되고 있지만 歲出規模의 30%가 넘는 자금이 국방강화책에 쓰이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重工業優先政策과 결합하여 農業, 輕工業部門의 資金需要를 압박함으로써 再生産構造에 나쁜 영향을 가져왔고, 이러한 자금의 낭비는 에너지 부문에 충분한 고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만성적인 에너지부족난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自力更生論이 강조되면서 이 國防·經濟併進政策은 그 한 지주가 되어 더욱 더

<표 2-13> 北韓의 軍事費 내역 (단위: 북한貨 만원)

	예산보고	실질군사비	세출	세출군사비 / 세출(%)
1961	5,845	94,062	233,800	40.2
1965	27,809	156,046	347,600	44.9
1970	187,584	254,203	600,200	42.4
1975	186,427	414,282	1,136,700	36.4
1980	273,957	608,793	1,883,700	32.3
1981	300,928	660,823		
1982	325,288	722,862	2,339,359	30.9
1983	354,891	742,175	2,401,860	30.9

* 1961 - 1980년까지는 國土統一院 (19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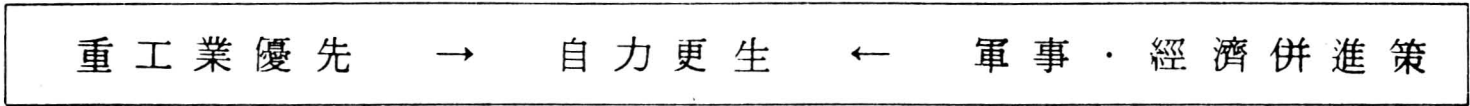
* 1981년과 1982년은 國土統一院 (1983.12), 1983년은 國土統一院 (1984.11)에서 인용.

강조되어지므로 차할 전망마저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의 경제발전과정을 고찰한 후 발전이 둔화되면서 한계에 이름을 알았고, 본 장에서는 그 원인이 그들의 기본적 발전 3 전

략, 특히 그 셋을 포괄하면서 강화시키게 하는 自力更生論에서 나옴을 확인하였다. 自力更生원칙을 축으로 하면서 계속 강조되어온 重工業優先, 軍事·經濟併進의 세가지 기본전략에서 나온 기본애로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 경제운용 방침



↓
北韓이 당면한 7대 난제

1. 食糧事情의 惡化
2. 外債償還의 不能과 누적
3. 技術의 低位性
4. 資源의 부족과 고갈
5. 수송난
6. 에너지문제의 한계
7. 기본필수품을 포함한 消費財부족

- ↓
1. 成長率의 鈍化
 2. 經濟發展의 限界
 3. 長期的, 動的 退化현상

결국 북한이 당면한 7가지 큰 문제는 그들의 기본경제운용방침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필연적인 산물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제1장에서 본 경제 각 부문성장율의 둔화, 장기적·동적인 퇴화현상으로 이끌어 북한경제의 한

계로 되었던 것이다.

이 7가지 난제의 해결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했던 북한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결국 개방화에 따른 自力更生의 재해석일 것이다. 그것은 따라서 重工業優先과 軍事·經濟併進政策에도 어느 정도의 여유와 구조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며 현재로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은 그 외에 없다고 봐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 모든 기본경제운용전략이 自力更生의 대원칙으로 수렴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난제들이 개방화만으로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즉 다른 원인에서 이 난제들이 일부 생겼다고 평가할 것인데 이는 단기적으로 옳은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스스로의 합리적인 변명을 자위수단으로 완전개방화시킬 수 없는 여러 문제점들과 연결시킬 것이다. 즉 기본 경제의 모순으로 지적된 것들이 합리적으로 보아 개방화를 촉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인 것에 의해 개방화를 일부 억제시키는 모순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Ⅲ. 發展戰略의 수정과 開放化

가. 開放化에 대한 變化要因과 그 推移

北韓의 對外經濟協力關係는 철저한 自力更生의 原則下에서 運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原則은 아직까지도 계속 고수되고 있지만 時期的으로 보아 크게 두 時期로 나누어 1970年 초반까지의 政·經不可分の 原則이 고수되던 時期와 그 이후의 補完時期를 거쳐 앞에서 얘기한 成長率의 鈍化現象이 나타나면서 좀 더 積極的인 參與가 나타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自力更生の 基本原則이 強調되 면서 經濟開發을 推進하던 北韓은 1967年 12月의 10대정강 發表에서 비로소 經濟的 意義를 政治的意義와 對等한 水準까지 올려놓게 되었고 이는 즉각적으로 다음해부터 貿易高에서 비약적인 增大로 나타나게 되었다.

<表 3-1 >

北韓의 貿易高 I

(單位：백 만불)

年 度	1946	1950	1955	1960	1961	1962	1963
貿 易 高	111.4	1044.4	105.3	320	326.4	352.5	420.8
增 加 率 %		837.5	-89.9	203.9	2.0	8.0	19.4
年 度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貿 易 高	415.7	450.2	487.5	440	582.8	696.1	
增 加 率 %	-1.2	8.3	8.3	-9.7	32.5	19.4	

* 國土統一院(1982.1)

그러나 1960 年代의 交易은 90 % 이상은 共產圈과의 交易이었으며 西方圈 國家들과의 貿易은 별로 重要하지 않았었는데 第 1 次 7 個年計劃을 마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工業成長率이 갑자기 鈍化되자 <그림 1-1 參照> 새로운 經濟發展戰略의 必要性이 切實히 要求되었으며 이는 1970 年 1 月 9 日의 北韓・蘇聯간 貿易協定으로 나타나고 이때에 貿易量의 增大를 보게 되었고 이어 1 月 30 日에는 蘇聯 經濟 및 科學技術協議會 代表團이 北韓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6 個年經濟計劃 중 최고의 과제로 제시된 技術革命을 위한 蘇聯으로부터의 輸入量增大는 貿易赤字를 점점 누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蘇聯에서 導入된 機械類 등의 生産要素에 체화된 技術水準이 西方國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北韓에 直接的인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닫자 西方國과의 交易과 開放을 좀 더 擴大시킬 必要에 直面하게 되었는데 이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1960 年 전후로 소련이 採擇한 修正主義 路線에 대한 그들의 形式的 反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은 耐久消費財需要가 급증함에 따라 量産體制로부터 質産體制

<表 3-2>

北韓의 貿易高 II

(單位: 백만불)

年 度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貿易高	696.1	805	909.1	1038.7	1340.4	1980.3
增加率 (%)		15.6	12.9	14.3	29.0	47.7
年 度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貿易高	1911.6	1528	1500	1910	2310	3179
增加率 (%)	- 3.5	-20.0	-1.8	27.3	20.9	37.6

* 國土統一院 (1982.1).

로 移行하게 되었고 市場價格機構, 利潤制, 貨幣機能, 資源配分에 있어서 利
子 및 賃金の 役割, 選擇自由의 擴大, 國際貿易의 必要性등을 통해 福祉
社會主義國家로의 수정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인데, 北韓은 成長率의 鈍化
에서 새로운 대안이 對外交易擴大와 技術導入임을 알고 實質적으로 그렇
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공공연한 소련의 수정주의노선은 北韓指
導層의 自力更生論 주장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統治技術
上 이것은 모순점을 國民들에게 보여주는 결과였고 이것이 바로 北韓體
制가 직면한 모순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2年 以後 北韓의 고위관리의 外交活動이 強化되면서 外資
導入과 技術導入의 다각화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1973年 以後 西方國家
들의 市場擴大努力과 일치하여 北韓에 대해 信用供與를 시작하면서 北韓
의 對西方國交易은 갑자기 擴大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對西方 交易增大는 自力更生の 完全한 拋棄가 아닌 必
要性 속에서 재해석되어 採擇된 모순된 것이었으므로 바로 外債의 累增
을 가져왔는데 1974年 7月 마침내 폭발한 外債問題의 發生을 들 수 있
다. 그리하여 1975年 이후 다시 西方과의 交易量은 減少하였고 이는 전
체 貿易高 감소 (<表 2-15>參照)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北韓은 1975年 全國工業熱性者大會에서 “資本主義市場의 積
極 參與, 西方으로부터의 機械, 設備 등까지의 導入”을 發表하여 새
로운 타개책을 다시 모색한 결과 6個年計劃의 年平均 工業成長率
을 다시 상승시켜 (12.8→16.3%) 目標水準에는 미달하지만 비교적
순조로운 成長을 이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1976年

<表 3-3>

北韓의 高位級 外交活動

(單位：件)

年 度	1948	1950	1952	1954	1956	1958	1960	1962	1964	1966	1968
件 數	0	0	9	7	15	11	19	29	39	25	37
增 加 率 (%)				-22.2	114.3	-26.7	72.7	52.6	34.5	-35.9	48.0
年 度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件 數	55	49	105	178	136	131	117	104	210	148	160
增 加 率 (%)	48.6	-10.9	114.3	69.5	-23.6	-3.7	-10.7	-11.1	101.9	-29.5	8.1

* 國土統一院 (1982.1)

* 國際機構와 國際會議事加는 除外

* 次官級以上, 같은 水準의 黨代表

<表 3-4>

北韓의 修交國 總數

年 度	1948	1950	1952	1954	1956	1958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國 家 數	8	12	12	12	12	14	16	16	22	24	28	35
增 加 率 (%)		50	0	0	0	16.7	14.3	0	37.5	9.1	16.7	25.0
年 度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4
國 家 數	37	46	61	76	89	90	91	92	96	100	103	106
增 加 率 (%)	5.7	24.3	32.6	24.6	17.1	1.1	1.1	1.1	4.3	4.2	3.0	

* 國土統一院 (1982.1).

(計劃期間의 마지막 年度)의 對外經濟協力中斷이라는 참혹한 對外的 評價下落在었다. 또한 이해 9月 毛擇東의 死亡으로 그나마 北韓의 戰略的 지주로서 共同補助를 맞추고 있던 中共이 實用主義 路線을 發表하자 北韓의 立場은 한층 더 미묘하게 되었다.

<表 3-5 >

中共의 貿易依存度

(單位: 경상가격, 美 백만 弗)

區分 年度	GNP (A)	輸 出 (FOB)		輸 入 (UF)		貿易額(D) B+C	貿易依存 度(D/A)
		輸 出 額 (B)	輸出依存 度(B/A)	輸 入 額 (C)	輸入依存 度(C/A)		
1950	25,000	550	2.2	580	2.3	1,130	4.5
1955	48,000	1,410	2.9	1,730	3.6	3,140	6.5
1960	68,000	1,860	2.7	1,950	2.9	3,810	5.6
1965	91,000	2,230	2.5	2,020	2.2	4,250	4.7
1970	157,000	2,260	1.4	2,330	1.5	4,590	2.9
1975	307,000	7,260	2.4	7,490	2.4	14,750	4.8
1976	323,000	6,860	2.1	6,580	2.0	13,440	4.1
1977	373,000	7,590	2.0	7,210	1.9	14,800	3.9
1978	438,000	9,750	2.2	10,890	2.5	20,640	4.7
1979	489,000	13,660	2.8	15,670	3.2	29,330	6.0
1980	544,000	18,270	3.4	19,550	3.6	37,820	7.0

* 李相俊, 「中共經濟論」, 박영사, 1985.

p.267에서 再引用.

<表 3-6> 中共과 西方先進國과의 貿易¹²⁾

年度別	輸 入 (CIF : 美 百 萬 弗)								
	美 國	캐 나 다	E		C		호 주	日 本	스 위 스
			西 獨	英 國	프 랑 스	이 태 리			
1950	14,263	251	1,067	4,091	383	136	337	2,614	434
1951	791	16	1,552	1,955	436	60	197	1,195	816
1952	5	4	476	1,366	77	129	31	108	551
1953		3	2,885	6,719	1,774	452	240	312	1,882
1954			1,322	4,609	956	498	280	1,460	1,386
1955		63	1,026	6,456	1,398	552	609	2,514	1,331
1956		214	1,916	6,334	1,994	922	967	6,366	2,526
1957		291	4,593	5,835	2,569	1,049	1,868	5,507	3,360
1958		653	15,524	12,822	1,892	3,100	3,118	4,813	1,839
1959		237	12,932	10,588	2,637	3,885	3,127		2,049
1960		1,377	9,418	10,451	4,149	3,749	2,169	19	2,301
1961		16,788	3,373	4,625	3,373	3,482	18,775	1,445	1,164
1962		15,687	3,803	3,196	5,448	2,368	10,619	4,216	841
1963		11,110	1,553	4,290	7,406	2,473	24,560	6,444	430
1964		16,199	2,622	6,966	6,466	1,719	18,405	16,081	1,273
1965		12,577	6,772	12,306	7,194	5,976	21,497	26,183	2,182
1966		23,019	12,058	20,375	11,877	6,873	10,446	33,377	2,664
1967		10,157	20,771	21,943	8,822	7,695	24,300	30,427	2,850
1968		16,765	21,426	17,626	11,478	8,240	12,126	33,489	3,102
1969		10,440	17,170	28,355	5,731	6,585	12,062	38,176	2,247
1970		13,590	20,554	38,562	10,951	5,511	13,034	58,273	2,413
1971		19,769	15,749	16,617	11,332	5,405	2,239	59,440	2,149
1972	331	30,090	18,352	18,588	13,184	7,886	3,946	62,739	3,612
1973	22,066	37,738	36,338	42,373	48,109	7,775	13,470	110,745	11,814
1974	37,285	56,667	49,390	44,382	73,437	11,438	36,291	198,271	10,714
1975	34,183	46,068	59,564	24,410	35,581	14,821	40,319	239,248	10,607
1976	16,064	25,577	72,099	16,988	47,741	16,732	34,174	181,661	9,295
1977	11,462	46,058	52,978	27,936	27,921	9,586	51,787	210,854	17,072
1978	72,110	57,395	103,011	29,630	24,707	19,093	71,511	310,615	29,920
1979	185,659	62,244	173,940	50,115	40,620	30,871	98,519	394,401	20,764
1980	383,021	81,679	133,282	54,000	31,469	24,889	106,296	516,891	23,523
1981 ¹⁾	475,793	119,624	136,672	23,848	40,412	35,122	75,099	629,351	18,411
1982 ¹⁾	437,391	127,051	98,508	26,417	23,772	32,323	93,106	398,394	17,192

註 12) 李相俊, 앞의 책, p.290-291.

輸 出 (FOB : 美國 百萬弗)									
年度別	스위스	日 本	호 주	E		C		캐나다	美 國
				이태리	프랑스	英 國	西 獨		
1950	184	2,105	125	904	208	3,260	875	399	9,549
1951	181	95	95	262	36	1,552	200	39	8
1952	737	332	30	244	165	1,215	231	105	0.3
1953	1,353	680	72	517	618	2,985	322	124	0.2
1954	617	2,057	105	307	561	2,459	751	110	
1955	1,303	5,817	149	442	951	4,007	899	263	
1956	1,364	6,474	170	1,003	1,845	4,916	1,172	323	
1957	721	5,966	311	463	1,103	4,393	1,152	285	
1958	1,349	3,252	472	810	1,550	7,573	3,103	420	
1959	2,427		528	657	1,809	9,112	2,561	423	
1960	2,471		502	816	1,842	8,196	1,951	368	
1961	2,360	2,164	388	590	1,515	5,783	1,339	229	
1962	1,573	3,163	706	919	1,552	6,020	2,143	352	
1963	1,903	6,482	1,081	1,509	1,902	7,267	3,115	483	
1964	2,902	14,128	1,844	1,691	3,748	10,160	4,153	1,012	
1965	4,234	19,243	2,088	2,597	4,898	13,554	5,889	1,563	
1966	4,873	26,938	2,172	3,709	5,960	13,910	6,446	2,272	
1967	4,153	23,366	2,427	3,724	5,665	12,994	6,361	2,230	
1968	4,404	20,491	2,570	2,945	6,735	11,852	6,451	2,338	
1969	4,376	20,080	3,064	4,370	7,175	11,992	7,475	2,541	
1970	4,512	22,381	3,168	4,672	6,332	10,389	6,948	1,985	
1971	2,999	28,135	3,640	5,148	6,404	12,358	7,333	2,514	
1972	5,330	41,178	4,697	8,380	8,585	13,400	9,039	5,200	957
1973	12,127	84,112	8,186	11,543	16,732	20,843	15,596	6,794	3,972
1974	11,086	114,255	11,219	9,054	18,011	28,205	20,524	7,824	10,286
1975	11,181	140,300	7,012	10,138	14,810	24,166	21,990	8,161	12,888
1976	9,360	122,291	8,912	12,043	12,885	26,670	22,488	8,937	15,604
1977	8,558	135,671	10,094	11,220	14,150	25,089	26,081	7,997	17,963
1978	10,343	171,365	11,764	16,546	17,839	37,044	32,592	9,484	27,067
1979	16,932	276,413	15,611	30,280	23,398	47,887	45,915	14,513	59,501
1980	20,543	403,224	22,365	35,112	34,050	56,369	71,052	13,738	98,263
1981	11,918	486,957	24,043	26,383	29,272	42,208	85,437	18,625	154,301
1982	11,189	491,004	22,722	23,979	28,567	31,359	78,915	17,436	179,875

* 1) 1981년 및 1982년의 수출입 실적은 元貨表示金額을 대비달러 평균 환율로 換算한 것임.

<表 3-7>

中共과 西方發展途上國과의 交易¹³⁾

年 度 別	輸 出 (CIF : 美 百 萬 弗)							
	파키스탄	스리랑카	홍콩 및 마카오	버 마	말레이 지 아	싱가폴	이집트	칠 레
1950	1,561		852	240	6,082		213	
1951	2,339	585	42,979	700	3,318		47	
1952	8,010	2,314	13,510	67	18		861	
1953	671	5,957	12,161	306	97		977	
1954	2,097	4,493	8,848	52	622		1,053	
1955	3,090	1,620	3,462	1,729	408		2,453	
1956	1,442	5,040	2,808	1,797	956		2,485	
1957	1,022	3,654	2,518	927	3,107		3,000	
1958	1,682	1,546	2,539	344	386	4,326	3,538	
1959	160	2,697	2,045	39	79	4,182	3,655	
1960	1,553	2,725	1,661	701	62	2,465	4,372	
1961	875	1,868	1,183	3,968	60	389	1,284	
1962	209	2,876	971	2,048	12	34	1,606	
1963	1,205	2,396	816	1,437	1	569	1,777	
1964	4,692	2,471	1,565	1,769	6	31	1,741	122
1965	4,405	3,819	1,771	1,645	40	441	4,132	1,350
1966	3,185	3,838	1,614	1,592	41	4,139	3,445	1,716
1967	3,234	3,962	1,236	812	38	3,849	2,651	377
1968	2,397	3,127	1,077		93	4,680	2,001	180
1969	2,070	4,032	1,343		64	9,145	1,099	15
1970	4,134	4,039	1,387	77	22	4,482	1,860	50
1971	3,016	5,272	1,161	872	108	3,428	2,149	1,335
1972	1,856	3,669	2,031	1,392	370	4,762	3,289	6,278
1973	1,715	2,647	13,658	584	128	13,637	2,550	10,224
1974	876	5,137	10,882	3,816	391	14,091	4,971	11,011
1975	1,540	7,279	3,458	1,658	5,104	3,477	5,283	2,970
1976	1,739	5,156	2,868	2,017	4,903	5,456	5,224	3,160
1977	853	4,456	13,618	1,999	10,531	7,606	3,722	1,461
1978	4,301	6,053	7,469	2,889	11,115	7,629	6,290	3,866
1979	3,024	6,239	21,445	1,833	18,914	10,470	5,652	8,641
1980	17,549	7,198	56,982	3,434	23,993	18,985	9,744	12,165
1981	33,789	5,636	127,695	1,693	12,195	11,573	13,099	6,278
1982	14,494	725	134,949	1,533	15,958	10,569	6,360	7,881

註 13) 李相俊, 앞의 책, p.292-293.

年度別	輸 出 (FOB : 百萬달러)							
	칠 레	이집트	싱가폴	말레이 지 아	버 마	홍콩 및 마카오	스리랑카	파키스탄
1950		100		236	73	15,514		7
1951		47		416	179	19,445		2
1952		38		356	39	16,874	685	99
1953		63		477	58	16,808	4,402	169
1954		72		691	37	12,960	2,921	110
1955		200		1,625	1,068	15,475	2,013	14
1956	6	1,288		2,462	2,235	17,233	3,584	860
1957		1,865		2,887	1,115	17,521	2,499	316
1958	16	2,118	2,752	1,384	1,179	21,398	3,208	905
1959	7	2,128	2,817	595	1,095	19,105	2,287	672
1960	3	1,579	2,679	696	1,798	19,832	2,218	187
1961	2	1,414	3,013	856	2,091	18,976	2,323	277
1962	1	1,676	3,943	513	2,605	22,787	2,566	277
1963	1	1,592	5,099	1,296	2,457	30,064	2,939	481
1964	3	1,200	5,225	1,916	2,893	40,431	3,690	1,340
1965	8	3,620	6,188	2,158	2,580	46,162	2,886	1,555
1966	40	2,900	7,520	2,321	799	58,057	3,556	3,565
1967	38	2,584	10,628	2,821	1,297	49,673	3,307	4,956
1968	67	1,227	11,340	2,982	141	53,207	4,111	1,604
1969	16	1,547	10,491	3,166	04	57,468	4,590	2,119
1970	34	1,476	10,146	3,262	371	60,382	4,677	2,888
1971	156	2,092	11,160	2,672	908	65,888	3,079	2,964
1972	1,338	2,636	11,776	4,067	1,152	89,177	2,602	2,175
1973	1,265	4,317	19,564	12,493	1,682	157,931	3,892	4,824
1974	101	3,787	20,143	15,526	1,738	160,329	8,645	5,932
1975	291	5,876	23,792	10,857	1,465	171,943	9,013	7,058
1976	130	5,756	19,934	8,738	678	181,692	4,103	5,979
1977	290	5,537	20,205	9,443	935	201,239	4,560	6,394
1978	602	5,368	24,788	16,319	1,340	266,760	5,372	8,931
1979	1,067	6,940	29,645	17,137	1,280	354,784	9,496	12,182
1980	1,960	21,519	42,091	18,447	1,709	460,379	6,088	13,981
1981	3,899	17,676	67,675	19,589	3,577	568,021	3,114	21,511
1982	1,335	24,139	64,451	18,456	3,209	555,207	3,801	20,577

<表 3-8>

中共의 共産圈國家와의 貿易¹⁴⁾

年度別	輸 入 (CIF : 美 百 萬 弗)								
	소 련	폴란드	東 獨	헝가리	체 코	루마니아	유 고	쿠 바	北 韓
1950	18,519	262	2		112	27			275
1951	49,731	2,124	371	573	2,190	9		507	88
1952	65,217	2,221	6,579	2,506	4,879	1			200
1953	77,762	2,488	4,589	3,201	5,477	256			129
1954	70,461	3,943	10,471	3,249	6,756	698			260
1955	111,964	2,940	9,489	3,217	6,473	685			347
1956	76,209	4,196	10,640	3,799	6,490	1,891	429		673
1957	61,773	4,675	10,110	2,578	8,642	1,493	756		1,951
1958	63,970	5,670	16,283	5,060	9,700	2,360	985		4,281
1959	97,906	4,727	10,741	4,080	10,362	2,871	622		4,495
1960	84,516	4,692	9,489	3,831	9,335	3,224	133	1,405	5,297
1961	29,165	2,749	6,330	2,804	5,078	1,311		11,487	5,311
1962	21,092	1,499	2,589	1,508	1,256	217	4	10,671	5,414
1963	19,428	577	885	373	943	1,374		7,986	6,432
1964	13,358	1,605	1,141	253	802	1,591	10	8,956	6,504
1965	18,577	1,547	2,634	804	1,838	2,632		10,427	8,325
1966	16,473	2,865	3,399	1,984	2,373	3,142	31	8,152	8,846
1967	5,594	2,191	3,576	1,039	1,448	3,848		5,992	8,299
1968	5,921	2,759	3,081	1,036	2,113	4,274	22	6,966	4,587
1969	2,698	1,502	3,333	806	2,468	2,114	4	5,188	4,494
1970	2,406	2,135	2,857	859	2,972	6,095	82	6,985	5,420
1971	6,834	2,905	4,391	1,575	3,185	9,608	299	6,551	7,241
1972	11,683	2,543	6,037	2,277	3,364	11,710	1,160	5,336	11,863
1973	12,834	2,826	4,651	2,029	3,873	14,926	5,886	8,344	11,840
1974	14,504	4,403	7,648	1,707	5,604	16,704	7,026	11,167	14,630
1975	14,595	6,813	12,128	4,063	7,481	24,218	1,597	11,055	19,781
1976	24,635	7,972	11,898	4,199	8,395	25,588	1,936	8,727	14,504
1977	15,259	7,956	13,166	3,338	9,320	27,290	4,577	5,889	14,721
1978	20,687	6,552	15,253	4,875	10,897	36,881	2,919	9,379	22,363
1979	25,039	16,650	19,759	8,050	16,158	60,366	5,032	11,775	33,021
1980	26,412	18,948	25,984	8,394	13,140	52,467	15,012	12,729	30,334
1981	15,590	6,568	12,317	4,395	5,753	49,646	6,283	19,472	23,627
1982	24,940	6,751	13,849	4,961	19,252	43,375	5,886	27,225	31,159

註 14) 李相俊, 앞의 책, p.294-295.

年度別	輸 出 (FOB : 美 百 萬 弗)								
	北 韓	쿠 바	유 고	루마니아	체 코	헝가리	東 獨	폴란드	소 련
1950	376				924	343	260	398	15,325
1951	1,723			15	4,836	2,229	5,536	2,877	31,129
1952	2,141			138	4,895	2,681	4,154	2,611	41,204
1953	4,505			609	5,488	3,046	6,460	2,864	48,061
1954	7,971			585	5,453	2,893	7,589	2,780	58,663
1955	7,259			997	6,378	2,883	9,241	4,115	67,021
1956	6,182		660	1,215	6,448	3,010	9,024	3,162	76,168
1957	3,650		937	1,538	6,948	2,638	9,059	3,653	74,697
1958	4,774		312	2,084	9,305	3,294	10,911	4,263	89,887
1959	7,089	0.06	576	2,971	10,677	4,085	12,509	5,618	111,794
1960	6,740	974	49	2,728	8,260	2,947	9,366	4,276	81,878
1961	6,382	10,754	4	1,179	3,054	1,222	3,145	1,764	53,626
1962	8,043	8,043	3	1,073	2,524	1,388	2,960	2,762	49,066
1963	8,706	8,924	5	1,774	2,869	1,683	2,664	2,105	40,678
1964	9,029	10,671		1,497	1,753	1,265	1,949	2,600	31,164
1965	9,701	11,174	2	2,143	1,789	1,327	2,555	2,486	22,167
1966	11,476	8,748	10	3,870	1,983	1,202	3,354	2,014	14,041
1967	9,364	7,705	170	3,111	1,652	729	3,267	2,220	5,547
1968	6,719	6,058	18	4,180	2,353	793	2,934	3,171	3,293
1969	4,721	6,849	16	4,492	3,078	1,093	3,769	2,174	2,724
1970	6,088	7,088	105	8,240	2,764	1,208	4,357	2,585	2,317
1971	9,432	6,524	162	7,984	2,225	1,423	3,474	2,308	8,093
1972	16,444	7,238	402	8,870	3,022	1,720	4,525	3,025	13,350
1973	21,755	9,527	2,113	12,314	4,560	2,213	6,427	3,429	13,343
1974	24,329	10,666	1,488	15,199	5,990	2,072	7,617	4,876	15,495
1975	28,406	8,484	1,105	16,974	7,516	3,479	10,557	4,519	15,130
1976	25,000	4,876	1,080	18,868	5,131	2,485	8,535	4,073	16,838
1977	22,717	5,411	4,366	25,426	8,109	3,472	12,106	6,293	17,645
1978	23,070	5,927	5,841	39,625	11,906	5,763	16,221	10,504	22,966
1979	31,701	9,358	4,840	49,011	11,264	6,172	19,787	14,292	24,223
1980	37,423	9,283	4,635	51,300	14,730	4,970	16,919	14,146	22,830
1981	30,605	7,879	2,202	38,502	7,062	4,113	10,114	8,528	12,524
1982	28,850	11,887	1,451	28,328	7,529	2,696	7,125	19,266	14,730

결국 1970年代 중반까지北韓과 함께閉鎖的 性格을 취하던中共은 大躍進期와 文化革命期에 最高經濟原則으로 強調하였던 自力更生原則을 毛 死亡後 實用主義路線으로 돌아서면서 現代化推進을 위해 1978年 이래 퇴색시키고 새로운 해석을 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外國의 援助, 借款 및 投資를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原則도 당면하는 經濟의 모순해결과 現代化를 위해 全國財政貿易會議(1978年 6月~7月)以後 外資를 積極 유치하겠다는 쪽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中共의 이 實用主義 路線에로의 선회는 成長率의 鈍化라는 치명적인 經驗을 갖고 對外개방에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北韓에게는 어찌면 對外的 形式矛盾의 한 단면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였다. 그리하여 1979年 9月 對外貿易強化와 輸出增大를 추진하였고 이제北韓은 本格的으로 開放化에의 選擇을 주저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2次 7個年計劃에서 지적한 問題點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구체적으로는 1980年 10月 김일성은 1980年代末 輸出은 現在의 4.2倍로 增加시키라는 輸出物量目標를 제시하였으며 輸出品 專門生産工場과 企業所를 신설하고 남포, 청진, 원산 등 貿易港의 擴張과 貨物船確保, 輸出業務改善과 계약의 철저한 移行, 輸出品 品質 및 包裝의 質 改善, 貿易關係從事者의 水準向上 등에 이르기까지 輸出指向政策을 實質적으로 推進시켰다. 그 이후北韓은 누적되는 債務 속에서 새로운 發展戰略을 모색해야 했으며 계속되던 第2次 7個年計劃도 55%라는 유래없는 達成率과 함께 그나마 겨우 올려 놓았던 年平均 工業成長率도 다시 떨어졌으며(그림 1-1參照) 第1章에서 分析했던 主要指標 成長率은 결정적인 鈍化를 나타내었고 제 2장에서 지적

되었던 基本的인 7가지 難題는 점점 더 北韓經濟의 애로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이 취할 수 있는 方法으로는 결국 계속적인 先進技術 및 設備導入을 위하여 西方 여러나라와의 合作投資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절대액은 적을지라도 償還率에서 北韓에 壓迫을 주고 있는 外債의 累增問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의 7가지 基本 難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81年 4月以後 日本과 3次에 걸쳐 우선 北韓經濟에서 가장 必須的인 無煙炭 및 滑石鑛山開發, 皮革, 신발, 건전지 등 生必需品, 輕工業部門과 農水産物 加工處理分野의 2大難題를 해결하기 위한 合作投資가 交渉되었다. 이는 北韓이 當面한 7大難題를 볼 때 가장 必要한 選擇일 수 밖에 없었고 특히 히다찌社와의 건전지 技術提携는 技術導入을 장려하는 선례를 남기기에 充分하였다. 이어 1982年 5月에는 西獨, 佛蘭西와 亞鉛鑛山 및 石油探查에 合作投資를 交渉함으로써 資源不足과 에너지問題라는 두 난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이어 1982年 6月엔 핀란드와 檢德(咸南)鑛山 合作開發에 同意하였다.

여기에 이미 自體生産體系上的 分業構造를 어느 정도 갖추면서 1960年代에 이미 수정주의 路線을 採擇한 소련과는 달리 北韓과 똑같은 經濟發展隘路(成長率의 정체성, 技術落後, 資本, 設備不足 등)을 갖고 있으면서 최근까지도 主體的인 自力更生論에 執着하였던 中共의 開放化政策은 앞에서 지적하였던 貿易高의 增大이외에도 合資會社의 中共內留置를 積極勸獎하고 있었고 또한 몇가지 主要指標에서 성공을 거둔 점은 비슷한 難

局에 처해있던 北韓으로서 肯定的인 手段이 아닐 수 없었다. 中共은 第 5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2次會議(1979.6.18-7.14)에서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採擇하여 外國의 私的資本에 과감히 門戶를 開放하였다. 그 政策 이유도 “技術隘路에 봉착하여 外國의 技術 및 設備를 쉽게 導入하며 外資를 절약하면서 外國의 近代화된 經營組織, 管理體系 등 革新要素를 도입시킬 수 있고 國際市場의 擴張과 參與가 쉬워진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北韓이 現在 기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中共은 1978年 以後 좀 더 集中的인 技術導入과 外國人投資促進을 도와주기 위해 深圳, 蛇口, 珠海, 廈門, 汕頭, 晉江, 莆田 및 琅岐 등 8個 特別經濟區를 設置하였는데 契約件數는 2,512件이고 契約總額은 約 132億 2千萬 香港달러에 달하여 이미 도입된 것만도 約 30億 香港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 合資企業은 127個(中共全體의 合資企業은 188個)이며 合作生産形態가 289個이고 外國人 子會社(100% 外國人投資)는 44個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企業 및 事業所 가운데 1,847件이 製造業으로 全體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까지 거의 동일한 經濟的인 난관에 봉착하였고 또 같은 經濟開發戰略을 고수했던 中共의 급격한 變化가 北韓에게는 주시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中共의 (아직은 한계적이지만) 성공은 北韓에게 다시 한번 直接投資의 尤리성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하여 1983年 4月부터 7月까지 서운석(平壤市黨 責任秘書), 양형섭(最高人民會議 議長) 등 9個 代表團이 대거 中共의 經濟特別地區를 시찰하여 1984年 1月 25日 最高人民會議 第7期 3次會議에서 “對外經濟關係를 發展시켜야 經濟建設促進과 人

民生活を 向上시킬 수 있다.” 라고 하여 對外經濟開放에의 必然性を 말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未修交 資本主義國家와도 對外經濟關係를 發展시키며 相互利益原則下에 技術交流와 經濟合作을 推進한다” 는 對外的 認識變化를 強調하였으며 實質的인 貿易增大措置를 講究하라고 제시되었다.

그러나 北韓의 修交國 總 106 個國 가운데 貿易協定을 체결한 나라가 50 個國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北韓의 既存交易國과는 貿易規模의 영세성과 무역기피라는 취약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債務關係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貿易協定을 꺼리고 있으며 특히 1975年 西方諸國의 신용공여도 1年뒤 中斷되게 했던 北韓의 自力更生的 基本經濟路線은 實質的인 면에서 서방여러나라의 協力を 막고 있어 北韓의 貿易增大措置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表 3-9> 貿易協定 체결현황 (北韓: 1984)

對象國	締結國數	國名
共產圈	14	소련,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 쿠바, 중공, 몽고, 베트남, 라오스, 쿠바
西南歐 및 美圈	5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말타, 가이아나
아시아圈	14	버마, 인도, 스리랑카, 인니, 파키스탄, 싱가포르, 네팔, 방글라데시, 이란, 태국,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圈	17	알제리, 이집트, 부룬디, 기니, 잠비아, 세이셸, 짐바브웨, 앙골라, 튀니지,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모잠비크, 콩고, 루안다, 모로코, 탄자니아, 모리타니아

* 徐極性, 앞의 책, p.176.

따라서 發展水準이 完全히 다른 소련이나 體制指向이 다른 東歐와는 달리 中共의 改革은 北韓에게 한 보기가 되었으며, 外國人 直接投資에 의한 金日成思想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效率을 높이고 技術을 導入하여 對外 이미지 提高의 4중 效果를 줄 수 있는 合營法을 제정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결국 經濟計劃期間을 계속 경과하면서 겪은 7가지 經濟難題는 貿易·協力強化를 해결수단으로 등장시켰지만 그 政策도 實行上에서 다시 限界를 드러내자 直接投資라는 수단의 合營法을 남게된 것이다. 開放化는 必然的이었을 뿐 그 정도가 문제였던 것이다.

나. 合營法과 開放化戰略의 定着

北韓은 앞에서 지적한 主要經濟部門 成長率의 鈍化와 그 원인인 7가지 장기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수단을 動員해 보았지만 작년에 끝났다고 발표된 2次 7個年計劃은 유래없는 最惡이었으며 이런 對內的인 經濟問題는 中共의 開放化政策 成功, 西方諸國의 北韓 交易기피 등으로 인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開放化擴大에 대한 결단을 내리도록 집요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金日成은 1984年 5~6月的 소련 및 東歐 7個國 순방에서 이러한 經濟難局의 타개를 위한 資金, 設備, 技術 등의 經濟支援要請이 별 效果를 얻지 못하자 ‘自力更生’의 實踐的 意味를 깨닫게 되었으리라 보아지며 결국 中共의 해석 수정처럼 自力更生이란 自體的인 生産, 循環經濟構造가 성숙된 후에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概念임을 스스로 體驗하고 결국 이것이 결단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 共產圈의 經

濟政策의 수정은 一般的이었으며 특히 北韓과 비슷한 經濟問題에 처했던 유고,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中共등 6個國이 이미 西方資本主義國과 合作投資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對外的인 갈등은 적었으리라 볼 수 있다. 이제 問題는 對內的 問題에 있어서의 制限要素인데 이는 장기적 損益計算과 對南韓과의 問題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犧牲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北韓의 合營法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開放化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狀況에서 1984年 9月 8日 總 5章 26條로 發表되었다. 이 法은 中共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유사한 것 같지만 中共은 일찍부터 資本主義圈과의 妥協가능부분인 賃金, 각종 稅金 및 國有化經過措置 등에 대해 法規 및 細則을 마련하여, 1980年에는 ‘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法人所得稅法’을 만들어 合作會社의 負擔稅率은 收入의 33%이며 果實送金에 대해서는 送金總額의 10%를 所得稅로 納付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異質的인 經濟體制의 調整問題에 고심하였는데 비해 北韓은 이렇게 구체적인 細則 및 條項을 정하지 못한 채 (그 이유는 뒤에 설명된다.) 概括的인 것에 特徵이 있다.

예를 들어 合營對象을 外國의 會社, 企業所, 個人으로 모두 包括한 후 合營範圍도 工業, 建設, 運輸, 科學技術, 觀光業 등으로 廣範圍하게 정하였다. 여기서 個人을 넣은 것은 個人企業體를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經濟體制에의 동요보다 最短期 效果에 있어서 親北性向의 제일동포 및 해외동포의 合作을 許用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外國法人體의 合作을 유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관

심대상인 出資範圍에는 現金, 現物은 물론이고 라이선스 및 技術文獻 등까지 規定을 넓혀 두었으며 자신들의 異質的인 經濟體制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유인을 주기 위하여 完全한 私企業體形態로의 運用을 許用하였고 積極的인 技術, 資本導入을 위한 原料, 資料輸入時 免稅規定을 添付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投資比率, 그리고 배상, 보험문제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出資金의 回收 및 讓渡에 北韓側의 同意를 받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러한 第三者 讓渡나 參加人員 交替時 또는 紛爭發生時 北韓法의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나라 合營當事者는 分配받은 돈을 國外로 우송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면서도 豫備基金造成을 의 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極端的인 경우 “合營會社가 계속하여 缺損을 내거나 合營會社의 한편 당사자가 自己의 의무를 違反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會社를 運營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存續期間이 끝나기 전에 解散할 수 있다.”(24條)라고 애매한 규정을 둠으로써 理事長 등의 選出規定이 明確하지 않은 狀態에서 强制逐出의 可能性까지 담고 있어 결국 北韓의 實質的인 開放化意志 마저 의심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점은 第1章 合營의 基本 第4條에서“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合營當事者들의 經營活動과 關聯하여 共和國法이 規定한 모든 合理的 權利를 보장한다. 合營會社는 모든 活動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法規範과 規定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法規定과 第26條 “……紛爭問題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심의한다.”라는 등의 거의 合意될 수 없는 規定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Ⅳ. 開放化 展望—效率性を 中心으로

北韓이 과연 開放化를 積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分析은 그 推進에서 오는 損失과 利得에 따라 決定될 것이다. 그 損失과 利得의 評價는 經濟的인 面과 非經濟的인 面에서 評價될 수 있으며 우선 經濟的인 面에서 보면 이미 앞의 分析에서 보았던 대로 北韓은 그동안 經濟計劃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成長率의 鈍化와 經濟發展의 한계라는 側面을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그 원인이 發展戰略的 側面에서 나온 7가지 基本難題에 있고 또한 그 問題가 심화되어 나감을 알 수 있었다. 미온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北韓은 開放化를 推進하고 있었던 狀況에서 이러한 問題들의 부각은 合營法이라는 直接投資 許用法까지 제정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開放化 積極擴大(直接投資 許用)以後의 北韓經濟의 특질을 평가하기 위해 中共의 開放化擴大政策(中外合資企業法)以後의 經濟指標를 갖고 論議를 展開하자. 그 이유는 市場크기와 對外的 公信力 그리고 資源賦存狀況 등 여러 점에서 北韓과 中共은 비교될 수가 없겠지만 이는 설명변수 중 dummy 變數化하여 뒤에서 한 變動要因으로 넣음으로써 어느정도 해소된다. 첫째, 종래의 輸出이 原則적으로 輸入財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輸出入均衡原則이 이제는 輸出自體의 增大를 위해 努力한다는 輸出指向開放化라는 점에서 둘째, 輸出大宗品이 주로 1次產品에서 輕工業製品으로의 轉換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 셋째 國家 및 政權機關이 獨占적으로 貿易을 管轄한다는 原則에서 轉換하여 民間部門의 貿易을 점

점 擴大한다는 점에서 中共과 똑같은 對外政策變化를 겪고 있으며 네째, 똑같은 대내적 애로요인 즉 技術不足, 資金, 資本不足을 해소하기 위해 改革을 시작한 점 다섯째, 1970年代 後半까지 自力更生에 의한 經濟開發戰略을 共產圈國家에서 유지해 왔다는 점 여섯째, 北韓의 開放化 擴大戰略이 合營法의 制定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中共의 최근 開放化戰略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實質的인 基本資料와 統計的인 側面 등에서 中共의 開放化擴大(中外合資企業法)以後의 經濟的 變化 側面을 보면 北韓의 미래평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中共 開放化擴大以後(1979)의 輸出이 얼마큼 擴大되었고 그 經濟成長寄與度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國民所得의 增加는 輸出産業에 의한 것과 여타산업부문에 의한 것으로 대별한 식

$$f(y) = \alpha + \beta x \quad (y : \text{國民所得增加率})$$

에 國民所得 Y,

$$Y = C + G + K + (X - M)$$

를 대입시키면

$$\alpha = cf(C) + gf(G) + kf(K) - mf(M)$$

$$\beta = f(X)$$

가 된다. 이 關係式으로 측정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表 4 - 1>

輸出的 經濟成長寄與度 (中共)¹⁵⁾

(單位：經常價格 百萬달러)

年度別	G N P		輸 出 (寄與度)			
	金 額	成長率(%)	金 額	成長率(%)	輸出依存度(%)	寄與度
1951	32,000	28.00	760	38.2	2.4	0.92
1952	38,000	18.75	820	7.9	2.2	0.17
1953	41,000	7.89	1,020	24.4	2.5	0.61
1954	43,000	4.88	1,150	12.8	2.7	0.34
1955	48,000	11.63	1,410	22.6	2.9	0.66
1956	54,000	12.50	1,650	17.0	3.0	0.51
1957	59,000	9.26	1,600	△ 3.0	2.7	△ 0.08
1958	71,000	20.34	1,980	23.8	2.8	0.66
1959	69,000	△ 2.82	2,260	14.1	3.3	0.47
1960	68,000	△ 1.45	1,860	△ 17.7	2.7	△ 0.48
1961	55,000	△ 19.12	1,490	△ 19.9	2.7	△ 0.54
1962	62,000	12.73	1,490	0.0	2.4	0
1963	70,000	12.90	1,650	10.7	2.4	0.26
1964	81,000	15.71	1,920	16.4	2.4	0.39
1965	91,000	12.35	2,230	16.1	2.5	0.40
1966	106,000	16.48	2,370	6.3	2.2	0.14
1967	105,000	△ 0.94	2,140	△ 9.7	2.0	△ 0.19
1968	110,000	4.76	2,100	△ 1.9	1.9	△ 0.04
1969	129,000	17.27	2,200	4.8	1.7	0.08
1970	157,000	21.71	2,260	2.7	1.4	0.04
1971	177,000	12.74	2,640	16.8	1.5	0.25
1972	193,000	9.04	3,440	30.3	1.8	0.55
1973	230,000	19.17	5,820	69.2	2.5	1.73
1974	262,000	13.91	6,950	19.4	2.7	0.52
1975	307,000	17.18	7,260	4.5	2.4	0.11
1976	323,000	5.21	6,860	△ 5.5	2.1	△ 0.12
1977	373,000	15.48	7,590	10.6	2.0	0.21
1978	438,000	17.43	9,750	28.5	2.2	0.63
1979	514,000	17.35	13,660	40.1	2.7	1.08
1980	562,600	9.34	18,270	33.8	3.3	1.11

資料：1) 中共國家統計局, Statistical Yearbooks of China-1981, 1982, p.357.

2) Chu-yuan Che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Westview Press, 1982, p.300.

3) 朴態緒, 中共의 新貿易政策과 우리의 對應, 國際經濟研究院, 1980, p.14.

註 15) 李相俊, 앞의 책, p.340.

또 앞에서 北韓은 주로 1次産品の 輸出에 特化되어 있으므로 對外競爭力에서 장기적으로 뒤져 外債問題를 일으킴을 알았다. 이러한 점은 中共에 있어서도 거의 마찬가지였으나 1979年 開放化 擴大措置以後 급격히 바뀌고 있고 이것이 投資率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中共의 輸入 역시 1978年을 분기점으로 급격히 變하였는데 이 輸入의 總

<表 4 - 2 >

輸出商品構造 (中共) - 單位 : %¹⁶⁾

年 度	鑛 · 工 産 品	農 産 品
1952	17.9	82.1
1957	28.4	71.6
1960	26.7	73.3
1965	30.9	69.1
1977	38.5	61.5
1978	37.4	62.6
1979	44.0	56.0
1980	51.8	48.2

* 資料 : 1) Chun-yuan che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Westview Press, 1982, p.418.

2) 中共國家統計局, Statistical Yearbook of China, 1982, p.358.

投資와 工業生産에 대한 회귀분석을 보면¹⁷⁾ (I_p : 工業生産增加率, I_m : 輸入)

註 16) 李相俊, 앞의 책, p.344에서 재인용.

17) 李相俊, 앞의 책, p.341에서 재인용.

$$T1 = 144.783 + 0.02761 I_m \quad (T1 : \text{總投資})$$

$$(3.3550) \quad (3.84233)$$

$$R^2 = 0.7641 \quad D - W = 1.544 \quad F = 80.9796$$

$$I_m = -1749.50 + 19.4410 I_p$$

$$(-1.2435) \quad (6.6412)$$

$$R^2 = 0.9393 \quad D - W = 1.097 \quad F = 386.711$$

이 된다. 결국 中共의 輸入은 當年度 工業生産에 影響을 받아 總投資에 影響을 미침으로써 經濟成長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貿易이 擴大되면서 國際收支에 미친 影響을 보면¹⁸⁾ (E_x :輸出)

$$E_x - I_m = 2022.05 - 19.7543 I_p$$

$$(1.9706) \quad (-8.1085)$$

$$R^2 = 0.9435 \quad D - W = 1.232 \quad F = 417.31$$

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工業生産과 貿易收支가 逆의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工業生産과 輸入은 密接한 인과관계가 있어 工業生産의 增大는 곧 輸入의 增大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對外債務分析에서 償還不能과 債務累増을 경험하고 있는 北韓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問題點을 제시해 준다. 왜냐하면 資源이 부족하고 技術水準이 낮은 北韓 으로서는 必然的으로 開放化的 擴大(비록 合作投資의 形式을 취하더라도)는 輸入의 增大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貿易收支의 惡化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構造的 側面에서 農業部門과 消費財部門에 대해 알아보자. 中共

註18) 李相俊, 앞의 책, p.343에서 재인용.

의 開放化에 따른 工業化의 重要한 하나의 特徵은 中共内の 資本主義國과 合作한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公布 以後 1980 年부터 1981 年 2 年 동안 外國人과의 合作企業은 모두 29 個였다. 그중 發表된 15 個 合作企業을 보면 纖維, 안경, 손목시계, 밧데리 및 其他 家具와 플라스틱등 輕工業合作社가 11 個이며 泉州食品등 食料 및 飲料工業이 3 個이고 家電製品 製作社가 2 個, 그밖의 電氣機械와 製藥工業이 각각 1 個씩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纖維 및 輕工業部門에 대한 關心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며 이 纖維, 輕工業部門을 發展시키기 위하여 1980 년에 政府貸付는 20 億圓에 달하였는데 그 결과 1979 年 輕工業은 9.6%의 成長率을 보였고 이것은 重工業部門 7.7%보다 높은 增加率이었다.

또한 1979-1981 年の 調整計劃下에서 많은 分野의 資本投資가 削減되었는데 주로 冶金工業, 化學工業 및 機械製作工業分野의 事業으로 資本財工業投資의 減縮과 消費財供給의 증대를 目標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1980 年에도 大, 中規模의 234 事業과 86 個의 個人事業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었는데 그 중 64%는 機械, 化學 및 冶金 등 工業分野이었다.

이러한 消費財中心의 輕工業投資를 실시한 결과 表에서 보듯 방직업체품을 除外한 輕工業部門의 成長率은 비약적으로 發展하였다.

<表 4-3> 開放化以後 重工業과 輕工業(織物類 包含)

比率의 變動(中共) 19) (%)

年 度	重 工 業	輕 工 業
1978	57.4	5.4
1979	46.8	5.8
1980	45	8.0

註 19) 李相俊, 앞의 책, p.176에서 引用, 재구성함.

<表 4-4>

主要 年度別 工業成長率 (中共)²⁰⁾

(單位: %)

	1953~ 1957	1958~ 1965	1966~ 1978	1979~ 1981	1953~ 1981
1. 總工業生產額	18.0	8.9	10.2	7.1	10.8
(1) 重工業	25.4	9.7	11.8	1.3	12.3
(2) 輕工業	12.9	8.2	8.3	14.0	9.6
2. 主要工產品					
(1) 綿布	5.7	2.8	4.5	9.0	4.6
(2) 비단	17.4	11.3	4.6	11.0	9.2
(3) 종이 및 판지	19.7	8.4	7.4	7.2	9.7
(4) 설탕	13.8	6.8	3.5	11.8	7.0
(5) 자동차	58.7	10.9	12.5	27.1	20.4
(6) 재봉틀	33.3	20.5	11.1	28.8	19.1
(7) 석탄	14.7	7.4	7.8	0.2	8.0
(8) 原油	27.1	29.2	18.6	0.9	20.6
(9) 電力	21.5	17.0	10.8	6.4	13.8
(10) 鐵鋼	31.7	10.9	7.6	3.9	11.9
(11) 시멘트	19.1	11.5	11.2	8.3	12.3
(12) 목재	17.7	4.6	2.0	-1.4	4.9
(13) 造船	38.8	0.1	17.2	2.1	13.9

또한 두번째의 構造的 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하여 農業에 대한 投資도 1978 年の 10.7%에서 1979年 14%, 1980年 16%로 增加시켰다. 그

註 20) 李相俊, 앞의책, p.207에서 引用.

<表 4-5> 방직업제품의 생산량 및 증가율 (中共)²¹⁾

年度別	絲		化學纖維		布	
	生産量 (만 톤)	%	生産量 (만 톤)	%	生産量 (億 m)	%
1949	32.7		-		18.9	
1950	43.7	33.6	-		25.2	33.3
1951	48.7	11.4	-		30.6	21.4
1952	65.6	34.7	-		38.3	25.2
1953	74.5	13.6	-		46.9	22.5
1954	83.4	11.9	-		52.3	11.5
1955	72.0	-13.7	-		43.6	-16.6
1956	95.2	32.2	-		57.7	32.3
1957	84.4	-11.3	0.02		50.5	-12.5
1958	126.2	49.5	0.30	1,400	64.6	27.9
1959	153.1	21.3	0.54	80.0	75.7	17.2
1960	109.3	-28.6	1.06	96.3	54.5	-28.0
1961	66.9	-38.8	0.53	-50.0	31.1	-43.0
1962	54.8	-18.1	1.36	156.6	25.3	-18.6
1963	67.8	23.7	1.89	39.0	33.4	32.0
1964	97.0	43.1	3.21	69.8	47.1	41.0
1965	130.0	34.0	5.01	56.1	62.8	33.3
1966	156.5	20.4	7.58	51.3	73.1	16.4
1967	135.2	13.6	5.22	-31.1	65.6	-10.3
1968	137.7	1.8	3.60	-31.0	64.3	-2.0
1969	180.5	31.1	6.66	85.0	82.1	27.7
1970	205.2	13.7	10.09	51.5	91.5	11.4
1971	190.0	-7.4	11.99	18.8	84.2	-8.0
1972	188.6	-0.7	13.73	14.5	83.5	-0.8
1973	196.7	4.3	14.88	8.4	87.1	0.4
1974	180.3	-8.3	14.26	-4.2	80.8	-7.2
1975	210.8	16.9	15.48	8.6	94.0	16.3
1976	196.0	-7.0	14.61	-5.6	88.4	-0.6
1977	223.0	13.8	18.98	29.9	101.5	14.8
1978	238.2	6.8	28.46	49.9	110.3	8.7
1979	263.5	10.6	32.63	14.7	121.5	10.2
1980	292.6	11.0	45.03	38.0	134.7	10.9
1981	317.0	8.3	52.73	17.1	142.7	5.9
1982	335.4	5.8	51.70	-2.0	153.5	7.6

註 21) 李相俊, 앞의 책, p.192.

러나 穀物生産에 있어 1978 年의 비약적증가 이후 오히려 감소되는 傾向까지 띄는 부진을 낳았다.

결국 이러한 開放化에 의한 合作投資를 積極 輕工業部門에 投入한 결과 表에서도 볼 수 있듯이 主要工産品の 成長率增加를 가져오고 工業構

<表 4-6> 穀物生産의 推移(中共)²²⁾ (單位: 萬噸)

年 度 別	穀 物	쌀	밀	옥수수	콩	감 자
1949	11,318	4,865	1,381		509	985
1952	16,392	6,843	1,813	1,685	952	1,633
1957	19,505	8,678	2,364	2,144	1,005	2,192
1962	16,000	6,299	1,667		651	2,345
1965	19,453	8,772	2,522	2,366	614	1,986
1978	30,477	13,693	5,384	5,595	757	3,174
1979	33,212	14,375	6,273	6,004	746	2,846
1980	32,056	13,991	5,521	6,260	794	2,873
1981	32,502	14,396	5,694	5,921	933	2,597

造의 不均衡緩和를 이루게 되었지만 石炭, 石油, 電力 등의 에너지부문 增加率은 훨씬 떨어지거나 負의 成長率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事態는 中共보다 賦存資源이 훨씬 더 부족하고 利用費用이 높은 北韓에 대해 매우 불안스러운 事態라고 할 수 있다. 즉 에너지問題의 深化는 北韓이 위의 이유로 볼 때 中共보다 훨씬 심하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註 22) 李相俊, 앞의 책, p.146.

農業問題에 있어서도 領土賦存 넓이의 한계가 北韓으로서는 큰 問題라고 할 수 있다. 또 消費財部門에 대한 投資를 계속 늘려 消費財生産을 늘리는 中共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직은 절대적인 消費財部門에 대한 財源 割當不足 때문에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아 勞動生産性은 잠시 上昇했다가 다시 1980 년에는 2.0%로 增加率이 鈍化되고 1981 년에는 오히려

<表 4-7> 中共의 主要 年度別 勞動生産性의 變化²³⁾

(單位: 1970年 不變價格 元)

年 度 別	勞 動 生 産 性 (1 人 當 年 間 生 産 額)	指 數 (1952 = 100)
1949	3,004	72.1
1952	4,167	100.0
1957	6,336	152.1
1962	4,797	115.1
1965	8,943	214.6
1978	11,085	266.0
1979	11,790	282.9
1980	12,031	288.7
1981	11,815	283.5

1.8%나 下落하는 傾向을 보였다. 그런데 北韓은 계속 開放化 以後에도 生産財에 대한 선호도를 中共만큼 많이 줄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예상되므로 勞動生産性의 鈍化는 더 심화리라고 보여지며 또한 새로운 技術, 設備導入에 따른 充分한 要素集約度變化에 대한 適應과 關聯 技術者의 不足 등이 더욱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北韓은 결국 초기에는 成功을 거두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위와같은 장애요인 때문에 새로운 난관에

註 23) 李相俊, 앞의 책, p.210.

봉착할 可能性이 높다.

또 北韓의 開放化成功에 대한 可能性에 대해 市場構造的 側面에서 보면 北韓은 西方 25個國, 中立國 60個國을 包含한 100餘個國(수교국은 총 106個國: 1984年末)과 貿易去來를 하고 있으며 무역협정체결국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50個國이다. 輸出市場의 경우 1980年 基準, 소련에 30.8%, 中共에 24.1%, 其他共產諸國에 9.1%로 공산권이 64%를 점하고 있고 공산권을 除外하고는 日本이 11.2%, 西歐諸國이 9.1%, 아시아가 10.2%, 中東을 비롯한 其他가 5.5%를 점하고 있다. 輸入市場의 경우 소련이 26.8%, 中共이 21.9%, 其他 共產諸國에서 10.4%로 共產圈이 총 59.1%를 차지하고 있고 西方 및 中立國이 40.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日本이 14.1%로 壓倒的이다.

時期別 市場構造變化를 보면 일단 量的擴大는 充分히 實現possible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實質的으로 直接開放化措置에 參加할(中共의 開放化措置에 參加한 나라들을 基準으로 봄) 美國, 日本, 英國, 佛蘭西, 西獨 등 주요 資本國들이 非修交國이거나 或은 貿易協定 미체결국이고 貿易協定國들의 市場規模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극히 작아 질적으로 일단 난관에 부딪치리라 보여진다.

이러한 점도 단기적으로 보아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순수 경제적인 側面에서 中共의 開放化에 비교해 北韓을 展望해 보았다. 그 결과 工業生産과 國民所得增大에 있어 效果를 볼 수 있고 輸出商品構造에 있어서도 改善이 나타나며 消費財部門을 비롯한 輕工業部門에 대한 애로도 해소될 것이다. 이는 일단 最短期的인 面에서 西

<表 4 - 8>

北韓의 時期別 市場構造

(單位: %)

年 度	共 産 圈 貿 易	西 方 圈 과 의 貿 易
1965	89.1	9.09
1970	81.2	18.8
1975	64.5	35.5
1980	52.9	47.1

* 徐極性, p.187 에 의거 작성.

方諸國들은 ‘資本의 회임기간이 짧고 投資規模가 작으며 內需市場과 外需市場擴大 可能性이 있는 部門’에 參加하려 할 것이고 그러한 部門이란 觀光業과 消費財的인 輕工業部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技術, 資本問題에 대한 돌파구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은 分明 北韓에 대해서도 肯定的인 利益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에너지問題에 대한 애로는 開放化의 擴大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그 原因으로 에너지資源의 不足과 既存에너지源 利用費用이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치명적인 開放化에의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國際收支問題일 것이다.

처음 直接投資에 대한 導入目的이 이러한 國際收支問題에 대한 더 이상의 惡化를 방지하는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中共의 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工業生産의 增大는 輸出보다 輸入을 더욱 擴大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北韓의 開放化初期부터 根本的인 障礙要因일 것이며 또한 開放化擴大에 따라 중요한 한계로 되어 나타날 可能性이 높은 것이다.

결국 國際收支의 惡化와 에너지問題의 加重이 開放化의 損失要因으로 등장될 것이며 市場성과 채산성이 穢薄하므로 直接投資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으리라 보이는 輸送部門도 國際收支의 惡化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開放化에 따른 純粹經濟的 側面에서 北韓이 비록 緩和시키고는 있지만 消費財部門에 대한 좀 더 積極的인 投資와 配慮가 따르지 않는다면 初期에는 成長增加效果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勞動生産性增加의 鈍化를 가져와 開放化擴大 成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市場構造的 側面에서도 實質적으로 開放化擴大에 參加할 能力을 가진 나라들이 非貿易協定國 혹은 非修交國이므로 短期的으로 스스로의 모순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國際收支의 惡化라는 直接的 損失을 除外하고는 分明히 得이 더 크다는 經濟적 側面的 結果를 北韓은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北韓이 償還不能의 外債問題에 처해 있다해도 세계의 外債國들과 비교해 絶對額에서 매우 작기 때문에 償還의 可能性을 스스로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앞의 制約要因들도 초기에는 상당히 약한 狀態 혹은 일시적인 改善方向으로 나타날 可能性이 크므로 더욱 開放化에 대한 自信感과 의지를 갖고 開放化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대로 우선 經濟的 側面에서 國際收支의 계속적인 惡化와 에너지問題의 미해결 내지 加重, 勞動生産性的의 鈍化, 市場構造的 側面에서의 限界, 內需市場의 협소와 世界的 保護貿易主義 趨勢의 強化, 外債狀況·法律·制度的인 제약에서의 供給者側인 西方諸國의 北韓에

의 참여기피 등이 제한요소로 등장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한계가 時系列적으로 最短期, 短期, 中期, 長期에 걸쳐 肯定的, 否定的인 方向으로 逆變動할 수도 있으므로 좀 더 動態的인 評價가 要求된다. 한편 非生産職部門에의 과다한 投資를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과 당장 最尖端技術의 合作投資를 이끌 北韓내의 技術者群이 存在하지 않는 점, 資源配分의 優先順位에 대한 混亂(軍需經濟 등), 그의 非經濟的으로 經濟體制의 改革과 開放化가 다른 政治的, 社會的 側面에 미칠 波及效果 등의 制度要素가 開放化의 속도를 느리게 할 것이며 (이는 實質的으로 體制 및 法令 등의 合資投資에 대비한 不完全한 整備, 補完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要素가 당분간은 中共처럼 經濟特別區 등의 活動地域에서의 制限的 開放化를 만들게 할 것이다.

결국 最短期的으로 供給者側인 西方先進國들의 供給기피가 가장 큰 問題가 될 것이지만 短期的으로는 에너지問題, 勞動生産性, 市場構造的 側面의 制約要因들이 일시적으로는 肯定的인 方向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中期的으로 앞의 制約要因들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고 開放化는 주춤해지며 北韓은 이 制約要因의 克服을 위해 전념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長期的으로 보아 政治的, 社會的 側面의 波及效果에 대한 우려는 國民들의 福祉와 生活向上에 의해 政治體制가 더욱 공고해 지고 生産性 면에서 經濟成長에도 도움이 된다는 非經濟的 障礙要因의 철제 결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에너지問題의 해결(서서히 技術 및 資金의 解決), 勞動生産性的의 再增加(輕工業, 消費財 계속증가로 인센티브 增加, 技術·設備에 대한 要素集約度 適應과 技術者 養成), 市場

構造의 擴大(非修交國과의 信用回復과 西方과의 밀착강화) 등의 解決의 可能性이 낙관적이고 또 開放化에 의한 效果도 비약될 것이므로 肯定的으로는 開放化의 速度에 影響을 미칠 뿐 그 擴大原則에는 變化가 없으리라 보여진다. 그리고 그 開放化의 形態에 있어서도 이러한 時系列的인 分析에 따라 그대로 適用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우리는 앞의 第1章에서 먼저 北韓의 經濟發展 過程을 計劃期間別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및 <그림 1-4>를 利用하여 解放以後 現在에 이르는 期間동안의 北韓의 經濟發展을 工業成長率 및 그 累積과, 國民總生産 및 1人當 國民總生産의 成長趨移를 가지고 살펴 보았다. 여기서 發見하는 것은 이들 主要 經濟指標가 近來에 들어오면서 成長率이 모두 鈍化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第2章에서는 이러한 北韓의 基本的인 發展戰略인 自力更生의 原則, 重工業優先主義 및 軍事·經濟의 併進政策이 이러한 經濟成長의 鈍化 現象을 초래한 것이라고 分析하였다.

第三章에서는 北韓이 近來에 들어오면서 基本的인 發展戰略을 서서히 修正하고 開放化를 점진적으로 낮은 水準에서나마 推進하고 있는 推移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自力更生의 原則을 고수하던 北韓은 1967年 12月의 10대 정강 發表에서 처음으로 經濟的인 의의를 政治的인 의의와 대등한 水準까지 올려놓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貿易量이 급속하게 增大하였다. 그러나 1960年代의 交易은 주로 共產圈國家와의 交易이 90% 이상이나 되었고 西方과의 交易은 적었다. 1970年代 초엽에 들어오면서 資本, 技術導入을 西方國家들로부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서 西方國家와의 交易量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1974年에 發生한 外債問題로 1975年 以後부터는 다시 西方과의 交易規模가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北韓과 함께 閉鎖經濟를 유지해 오던 中共이 1976年 毛死亡以後 實用主義路線으로 선회하고 1978年 以後부터는 外債를 積極 유치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北韓은 점차 技術, 機械設備의 落後 및 成長率의 鈍化現象을 體驗하고 있던 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對外開放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中共의 實用主義路線은 상당한 影響을 미쳤다. 그리하여 1979年 9月 對外貿易의 強化와 輸出增大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1980年 김일성은 1980年代 말의 輸出을 現在의 4.2배로 增加시켜야 한다는 目標의 提示와 함께 各種의 輸出促進政策을 樹立하였다.

또한 先進技術과 機械設備의 導入을 위하여 서방 여러나라와 合作投資를 1980年代에 들어오면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日本, 西獨, 佛蘭西, 핀란드와의 交渉이 바로 그러하다. 동시에 1983年 以後부터는 中共에 고위관리를 파견하여 開放化 現場을 視察하도록 하였다. 1984年 1月 最高人民會議에서는 “對外經濟關係를 發展시켜야 經濟建設促進과 人民生活을 向上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未修交 資本主義國家와도 對外經濟關係를 發展시키며 相互利益原則下에 技術交流와 經濟合作을 추진한다.”고 추가하였다. 특히 1984年 9月 合營法을 發表함으로써 그동안의 開放化는 큰 전환점을 맞기에 이르렀다.

第四章에서는 開放化에 대한 展望을 하고 있다. 즉 向後 北韓이 과연 開放化를 積極적으로 推進할 것인지의 여부를 分析하고 있다. 이는 開放化에서 오는 損失과 利得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經濟的인 側面과 非經濟的인 側面의 두면이 있을 것이다. 經濟的인 面에서는 近來에 들어오면서 成長率이 鈍化된 原因이 根本적으로 發展戰略 自體가 지니는 問題點

에서 연유하는 것이어서 미온적이기는 하나 1970年以後 開放化를 推進해 오다가 1984年에는 合營法까지 制定하기에 이른 것이다.

機械設備의 老朽化, 技術의 落後 및 資金의 不足 등은 自力更生의 原則을 無理하게 추구해 온데서 초래된 必然的인 費用이었다. 이러한 北韓의 發展戰略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결함으로 말미암은 經濟成長의 鈍化現象은 開放化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1970年代以後 매우 서서히나마 開放化의 方向으로 北韓을 나갈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최근에 北韓이 西方國家로부터 合作投資를 유치하려고 努力하며, 中共의 經濟開放化 現場을 대거 視察하고, 對外經濟協力에 대한 基本的인 見解의 變化를 나타내고, 實質的인 貿易增大措置를 講究하며, 나아가서는 合營法을 制定하는 등의 움직임을 볼 때 基本方向에 있어서는 이미 開放化로 路線을 굳힌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開放化의 速度는 이를 저해하는 體制上的 속성과 새로운 제약요인의 도래로 時系列上 다르게 나타나리라 보여 動態的分析을 要求하게 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中共과 같은 急速한 開放化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전반적이거나 大幅的인 開放化는 期待하기 어렵고, 中共의 經濟特別區와 같은 合作投資地域을 설정하고 이 地域內에 대해서만 開放을 許用할 可能性이 높다. (물론 최근 北韓은 經濟特區에 대한 可能性을 부인했다.)

北韓의 開放化는 만일 積極的으로 추진된다면 北韓經濟의 成長을 促進시킬 것으로 展望된다. 단기적으로는 國際收支上的 애로 등이 예견되기도 하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애로요인들과 經濟外的 制約點들을 극복할 수

가 있으며 또한 開放化의 效果도 비약될 것이므로 開放擴大原則에는 變化가 없으리라 보인다. 이러한 北韓의 開放化는 대국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緊張을 緩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南韓에게도 이로우며 平和統一의 달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 1.*²⁴⁾ 國土統一院, 「金正一體制 登場과 經濟政策 展開樣相」, 1983.
- 2.* _____, 「南北韓 經濟分野 交流協力 實踐方案 研究」, 1984.12.
- 3.* _____, 「南北韓 經濟交流 推進方案에 관한 研究」, 1981.
- 4.* _____,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 1983.12, 1984.11 각권.
- 5.* _____, 「南北韓 總力趨勢比較」, 1982.1.
- 6.* _____, 「北韓의 貿易實績」, 1981.
- 7.* _____, 「北韓 主要 經濟日誌」, (1945-1983), 1983.12.
- 8.* _____, 「北韓의 輸出商品 資料」, 1984.12.
- 9.* _____, 「北韓의 合營法과 經濟開放化 展望」, 1984.10.
- 10.* 동아일보사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會,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別卷 北韓編), 1972.
- 11.* 延世大學校 産業經營研究所, 「共產圈國家 經濟體制的 比較研究 - 北韓經濟를 中心으로」, 1973.4.
- 12.* 俞完植, “北韓의 財政構造,” 「東西經濟」 1.2月, 1973.
- 13.* 徐極性, 「北韓의 經濟實狀」, 民族統一中央協議會, 1985.
- 14.* 李相俊, 「中共經濟論」, 博英社, 1985.
- 15.* 金光錫,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韓國開發研究院, 1980.
- 16.* Munk, Bernard, “The Welfare Cost of Content Protection: The Automotive Industry in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69.

17*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rterly Economic Review of China, North Korea, London, 1984 (No.1-No.4), 1985年 (No.1, No.2) 각권.